

제6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보고서

[Embargo] 본 내용에 대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사, 온라인 등에서는 2018년 6월 18일(월) 15:00 이후에, 신문지상에서는 6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본 여론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에 있습니다.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 NPO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협력]

● 한국 : 한국리서치 ● 일본 : 輿論科学協会

2018년 6월

조사개요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비영리단체인 겐론NPO(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여론조사를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현황 및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 연구 결과는 6월 22일에 개최되는 한일 민간 전문가 포럼인 “한일 미래 대화”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국 측의 여론조사는 한국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14명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9.7%, 여성이 50.3%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5.9%, 중학교 졸업이 7.5%, 고등학교 졸업이 41.2%, 대학 재학 및 중퇴 (전문대 포함)가 11.5%, 대학교 졸업이 31.8%, 대학원 이상이 2.1%이다.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17.6%, 30세에서 39세가 16.9%, 40세에서 49세가 20.3%, 50세에서 59세가 19.9%, 60세 이상이 25.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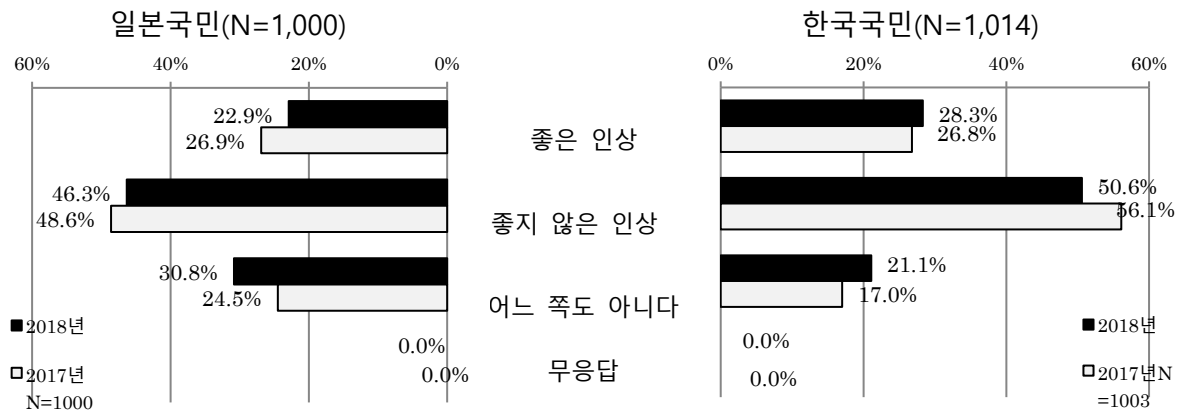
일본 측의 여론조사는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8.3%, 여성이 51.7%이며,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9%, 고등학교 졸업이 44.2%, 전문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졸업이 20.3%, 대학교 졸업이 22.6%, 석사 과정이 1.5%, 기타 1.7%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이 2.4%, 20세에서 29세가 12%, 30세에서 39세가 14.7%, 40세에서 49세가 17.4%, 50세에서 59세가 14.6%, 60세 이상이 38.9%이다.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1-1.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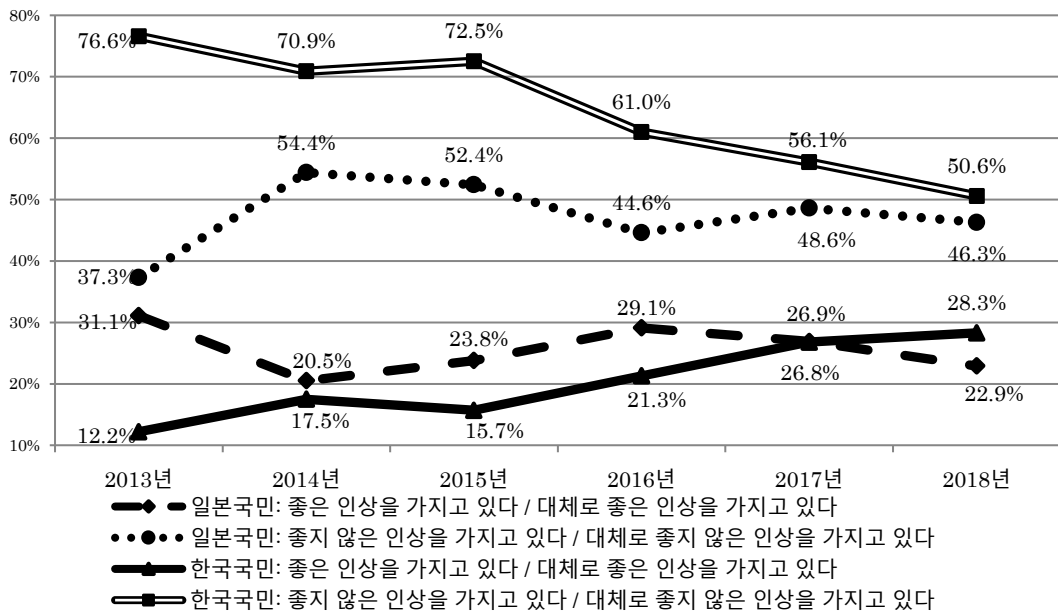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에는 확연한 개선이 없었지만,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작년에 이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1. 상대국에 대한 인상】



※ 좋은 인상은 “좋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를, 좋지 않은 인상은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를 합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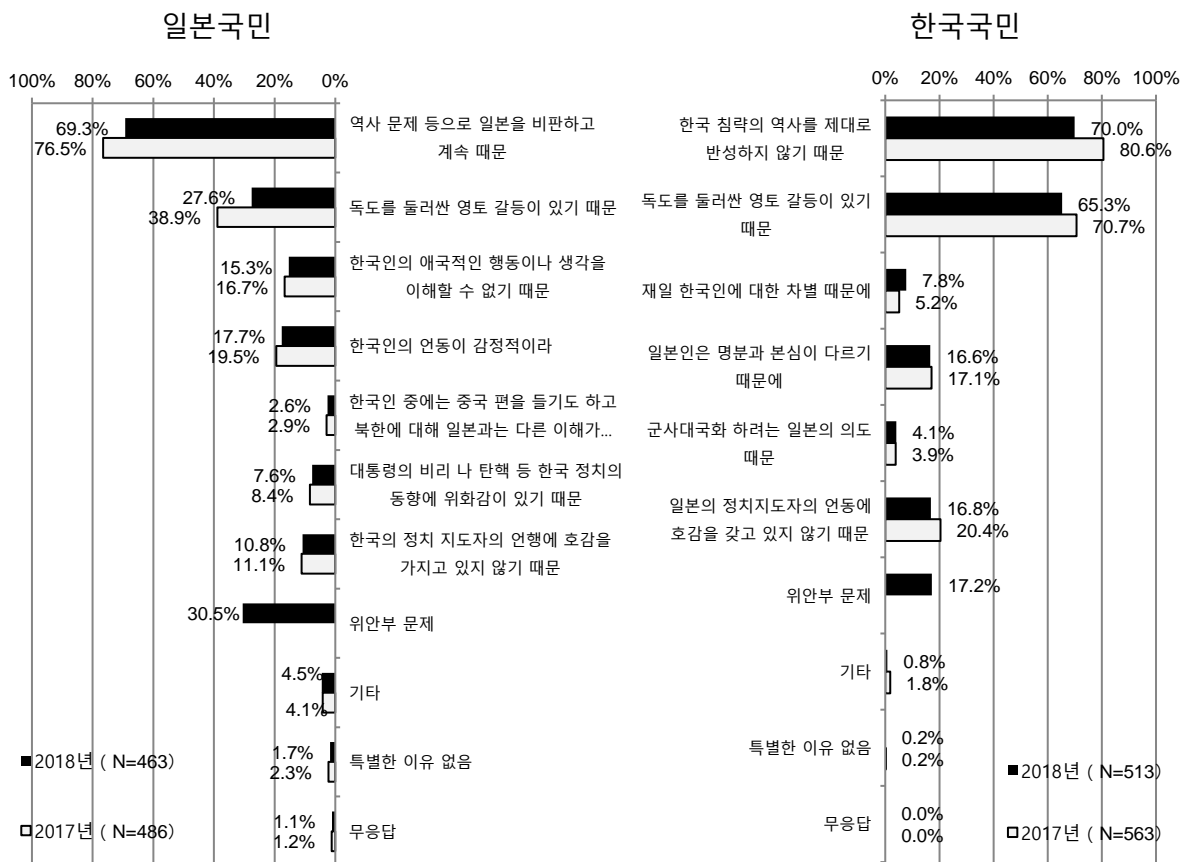
【그림2. 상대국에 대한 인상 (6년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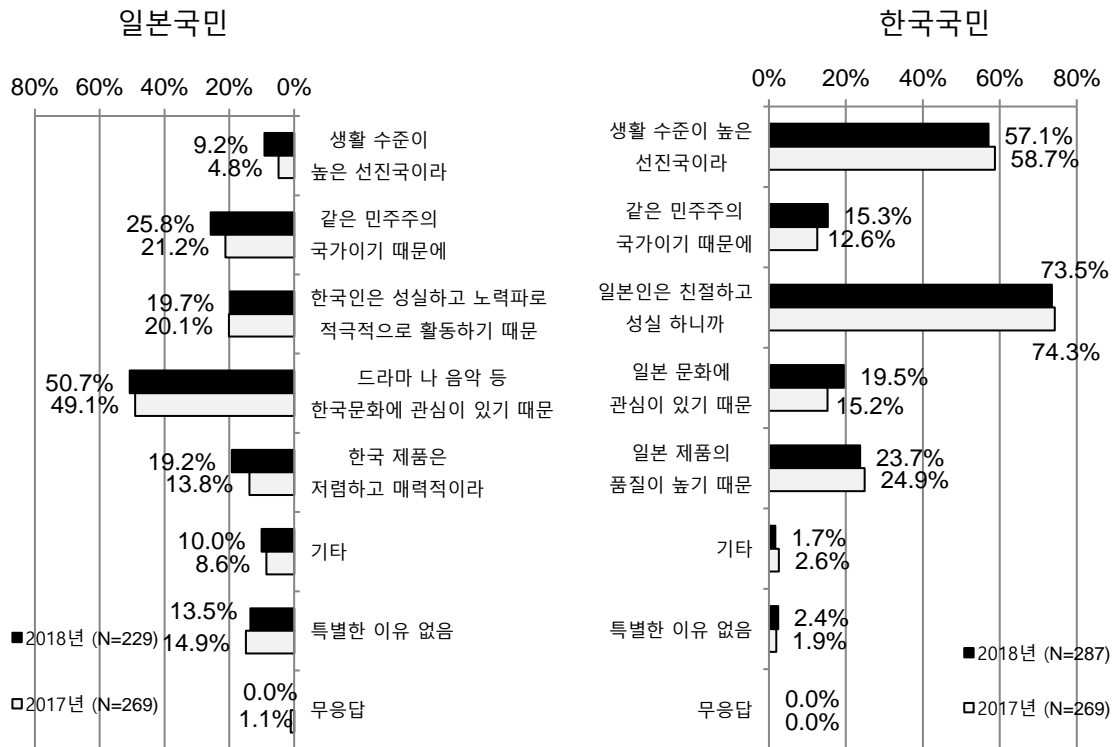
1-2.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양국 국민 모두 '역사문제'와 '영토 갈등'에 있어 작년보다는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대국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국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일본인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 한국인은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가장 많았다.

【그림 3.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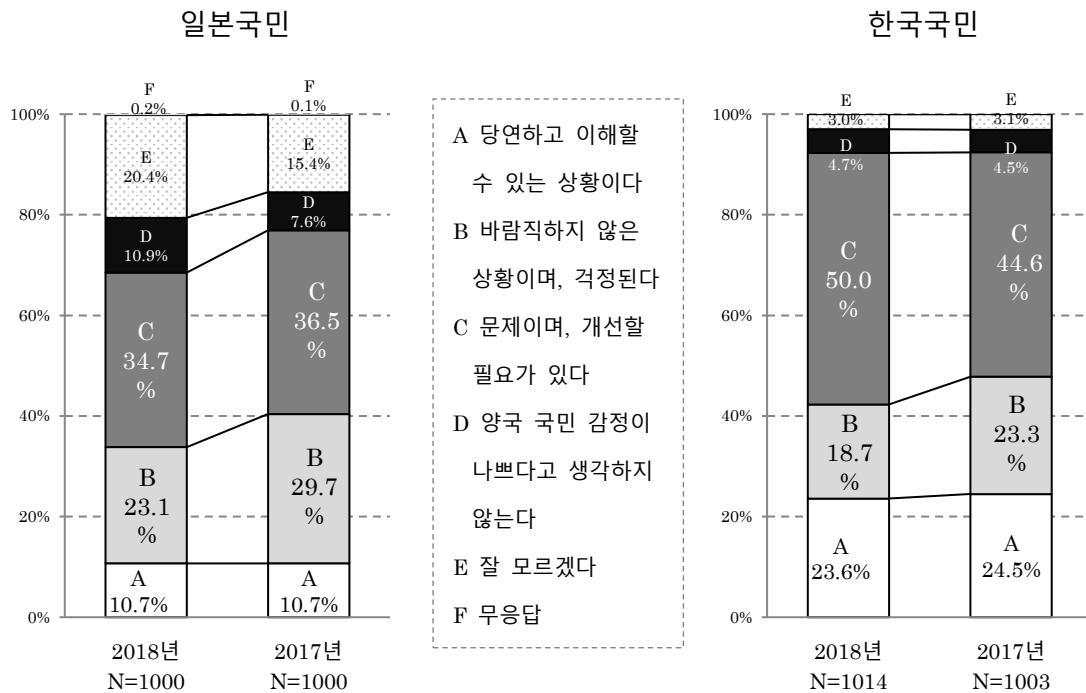
【그림 4. 긍정적 인상을 가지는 이유】



1-3. 양국 간 국민감정에 대한 인식

일본인의 약 60%, 한국인의 약 70%가 국민감정의 현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처럼 판단하는 사람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림5.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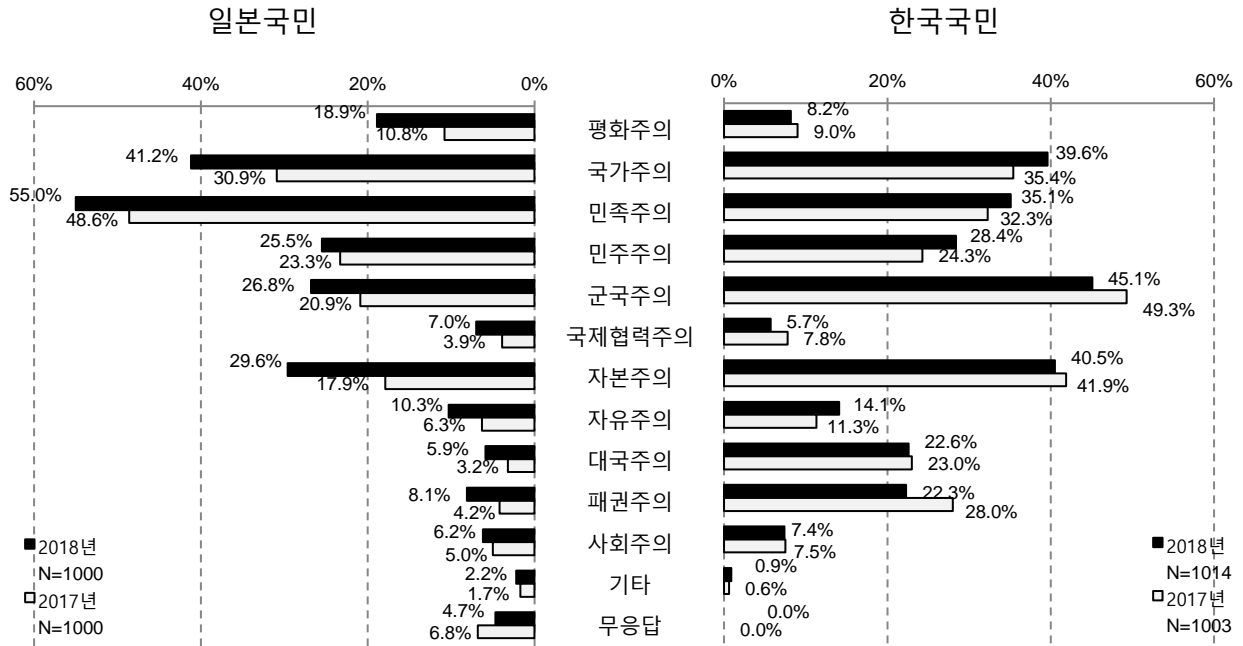


2.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2-1.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한국을 ‘민족주의’국가, 한국인의 40%정도가 여전히 현재 일본을 ‘군국주의’나 ‘국가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각각 20% 정도밖에 없다.

【그림6.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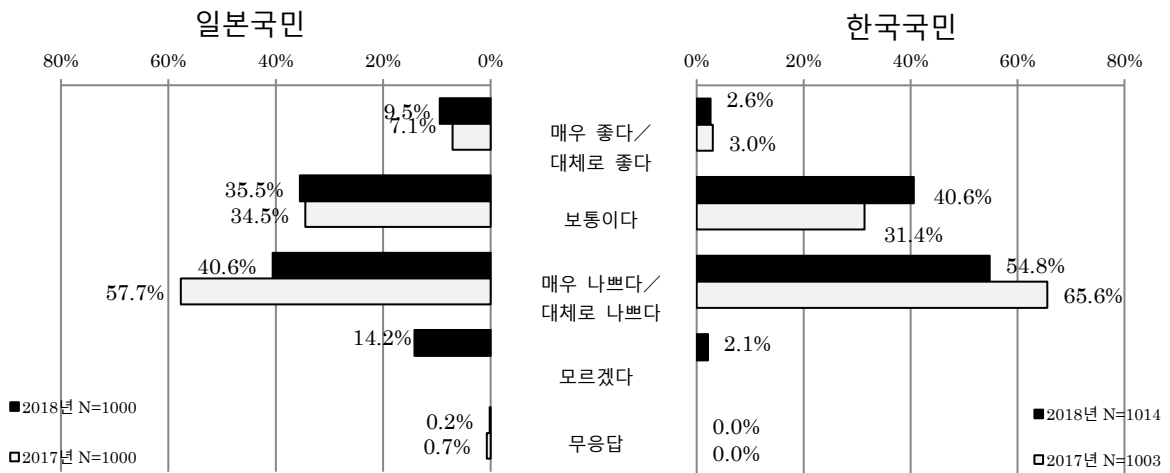


3.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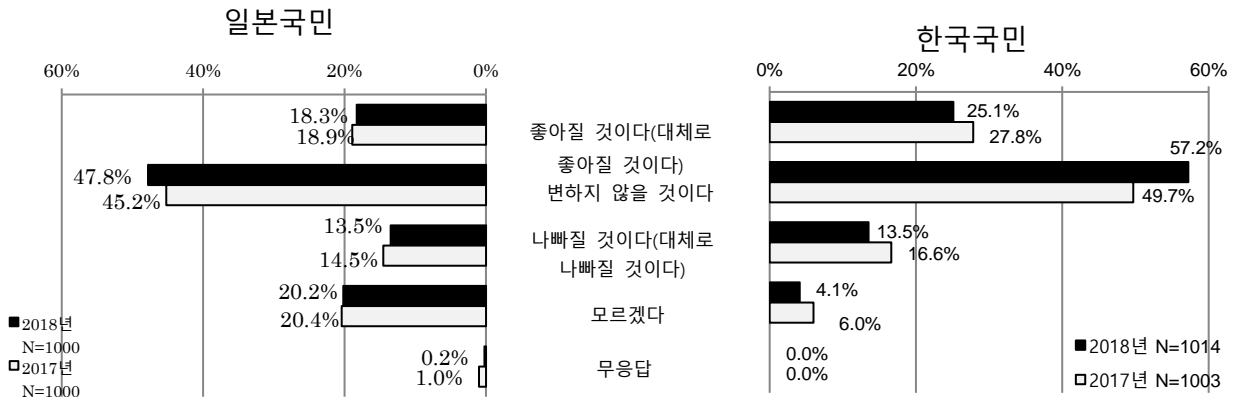
3-1.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나쁘다'라고 보는 일본인은 40%, 한국인은 50% 대로 지난해부터 크게 개선되었으며,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좋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양국 모두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는 개선된 결과는 아니다. 향후 한일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모두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다.

【그림7.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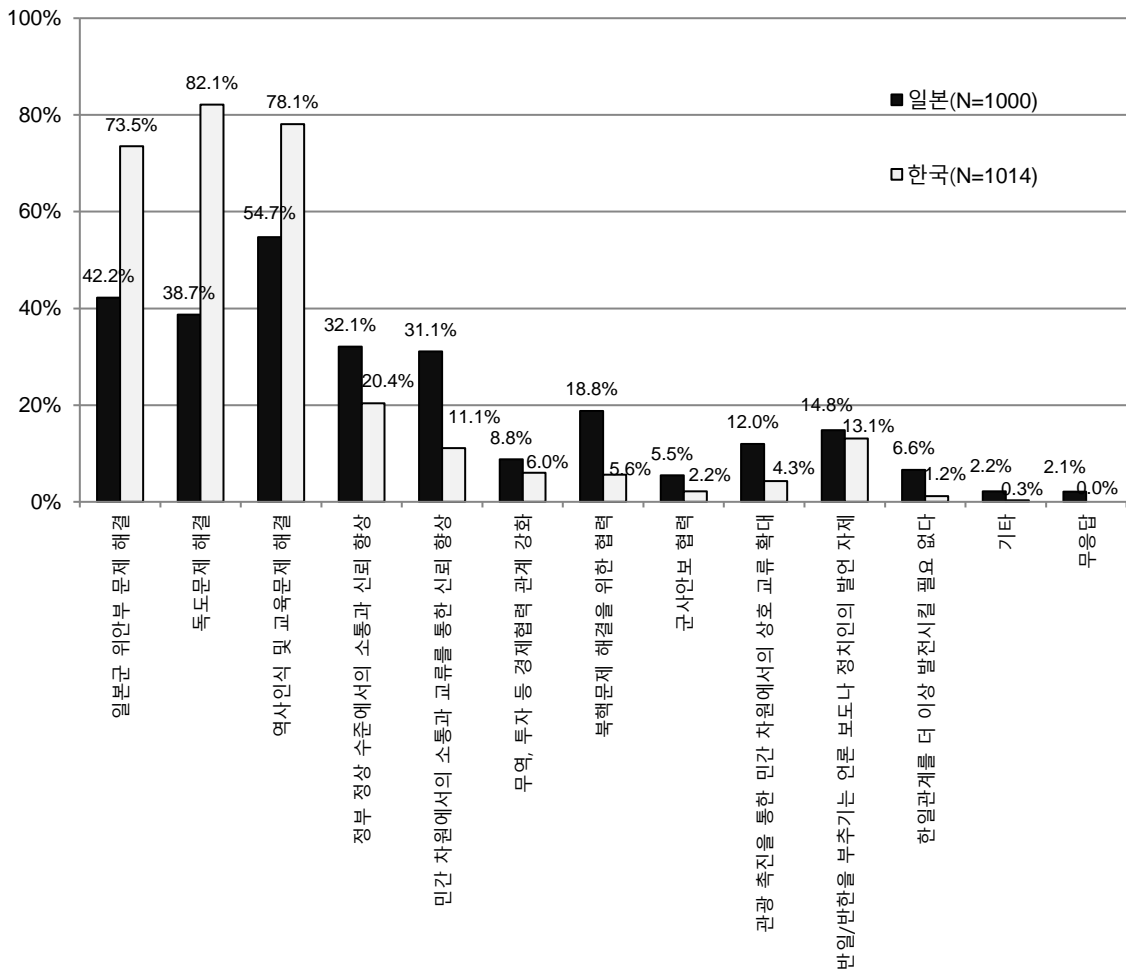
【그림8.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



3-2.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국인은 '위안부문제'와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해결'에 두드러지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일본인은 그 외에도 '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향상', '민간 차원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신뢰 향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화 되었다. 반면, '북핵문제'에서의 한일협력의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10%에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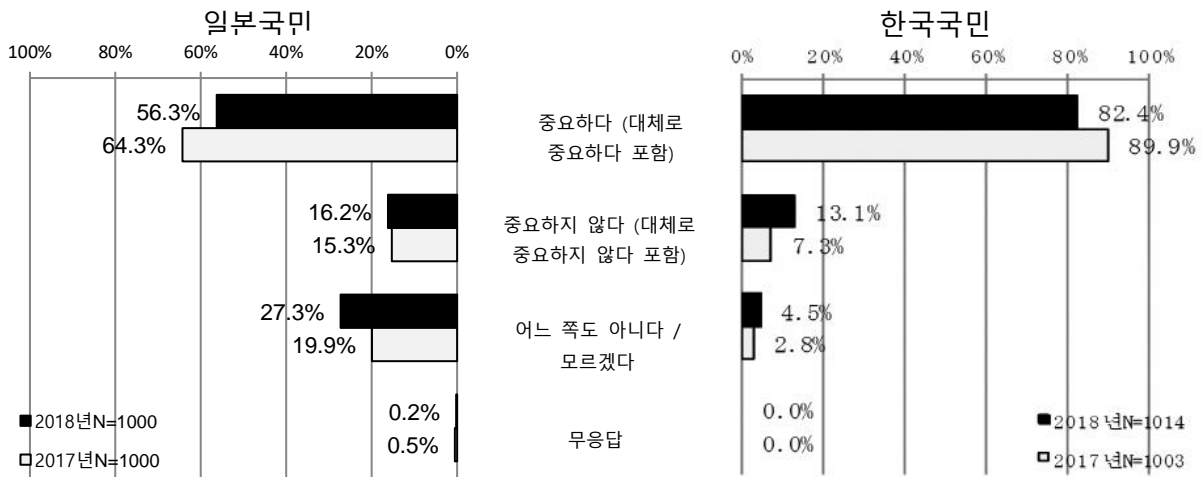
【그림9. 한일 양국민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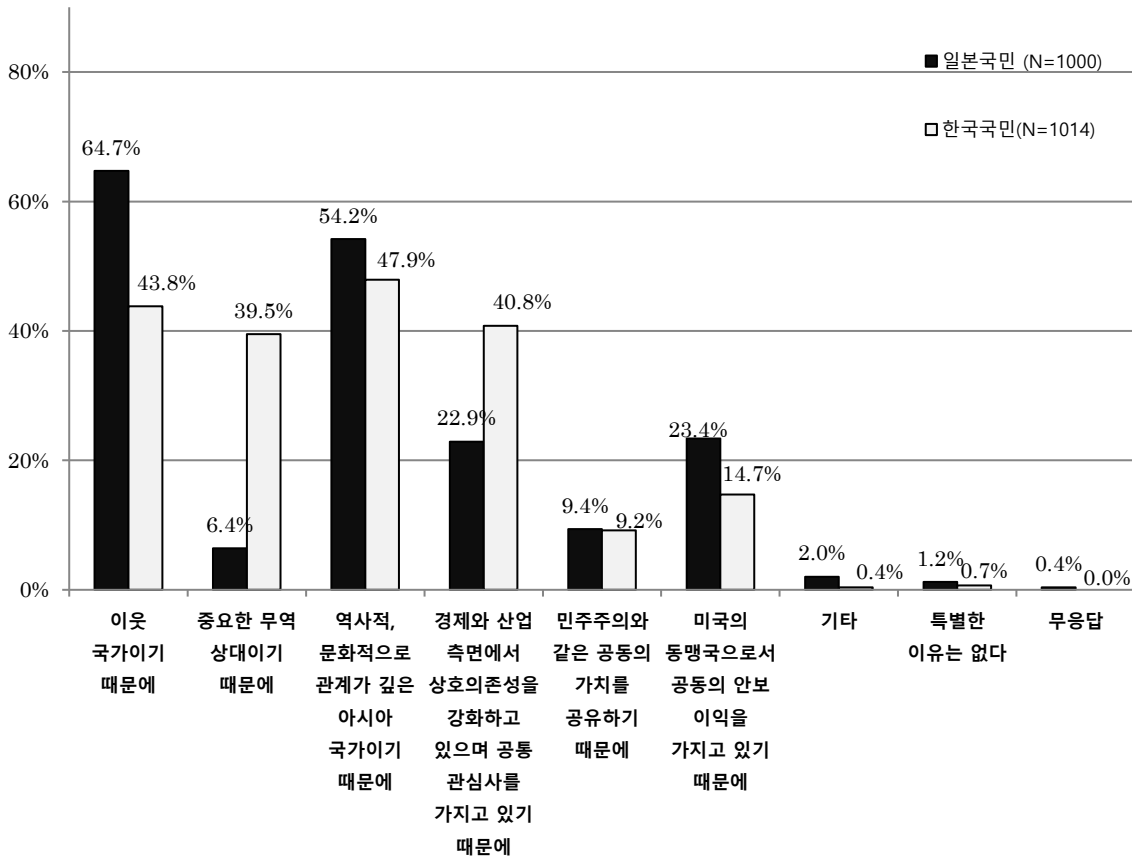
3-3.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80%, 일본에서는 60% 이상이지만, 그 수치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결과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인은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와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많지만, 한국인은 그 외에 경제 및 통상 면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림10.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림11 한일관계는 왜 중요한가?】



3-4. 중국 대비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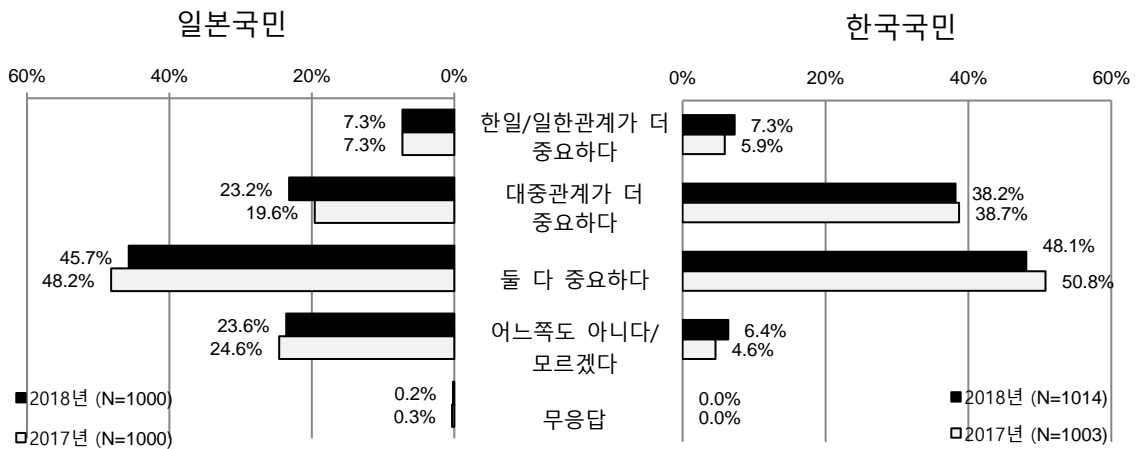
한일관계와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비교할 때, 일본인은 40% 이상 한국인은 50% 가까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인 중에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 응답한 국민은 38.2%로 약 40% 가까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일본인 23.3%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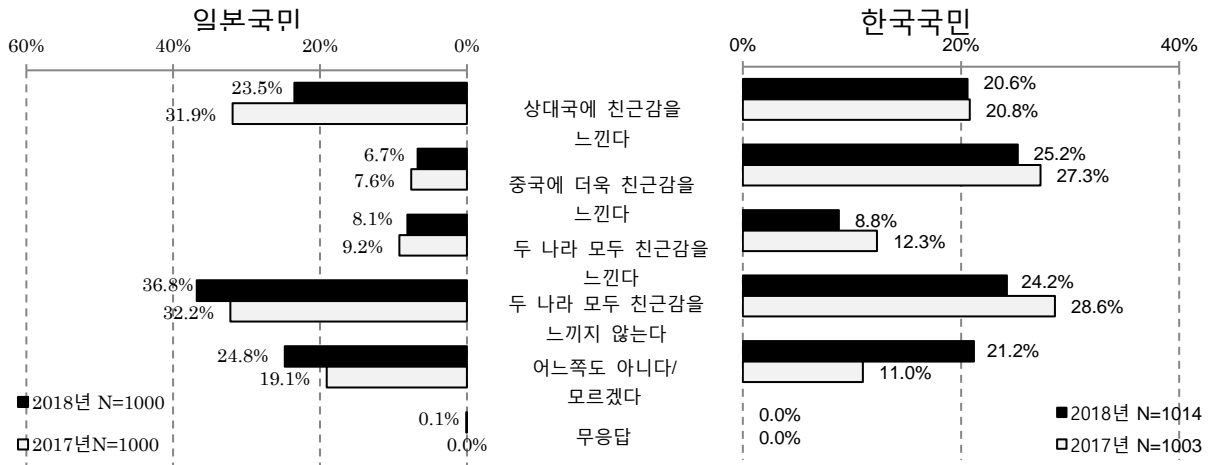
또한, 한일 양국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더 친근’하게 인식하는 일본인은 약 20% 수준에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도 약 20% 정도 수준이지만, 중국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비교했을 때, 한일 양국 국민 모두 약 60% 정도 ‘미국을 보다 친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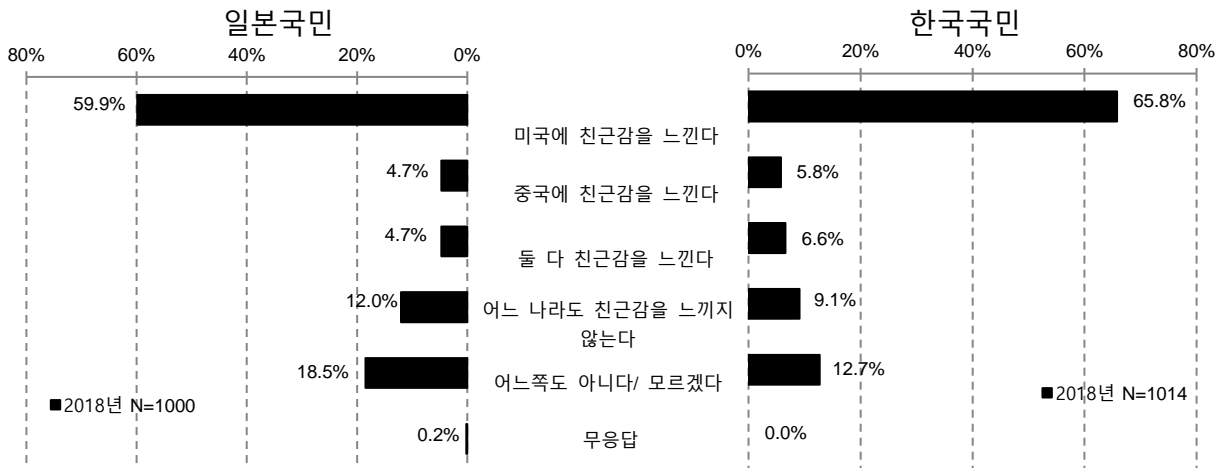
【그림12. 한일관계와 대중국관계의 중요성】



【그림13.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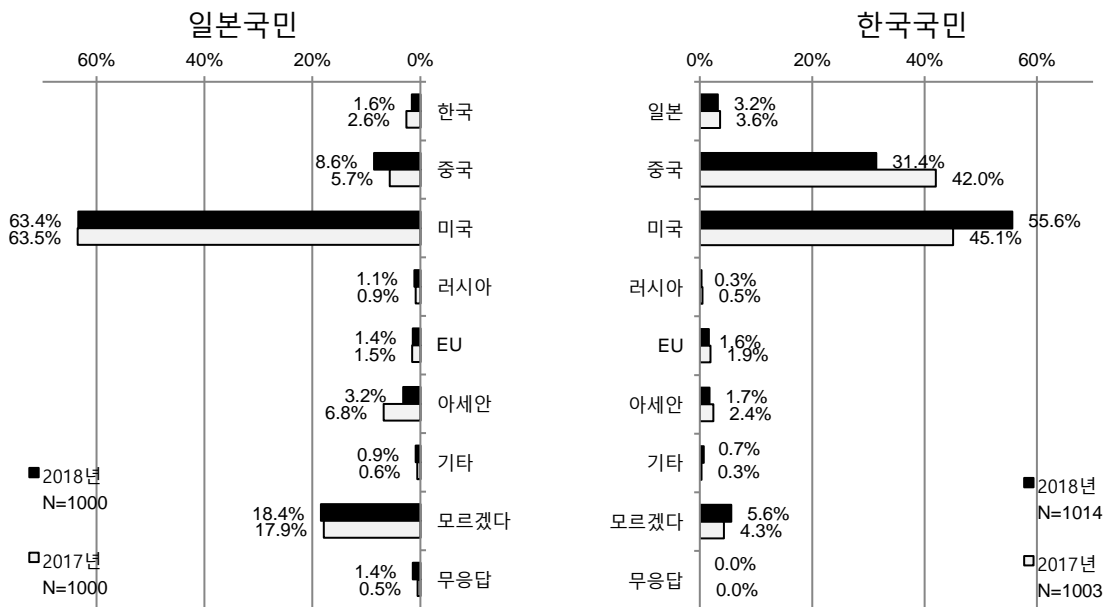
【그림14. 미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3-5.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

한일 양국 국민은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를 생각할 때,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을 선택한 사람이 60%를 넘었다. 한국인도 50% 이상의 사람이 '미국'을 선택했으며, '중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 정도에 머물렀다. 이 응답률은 작년도보다 약 1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양국 모두 상대국인 '일본'과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림15.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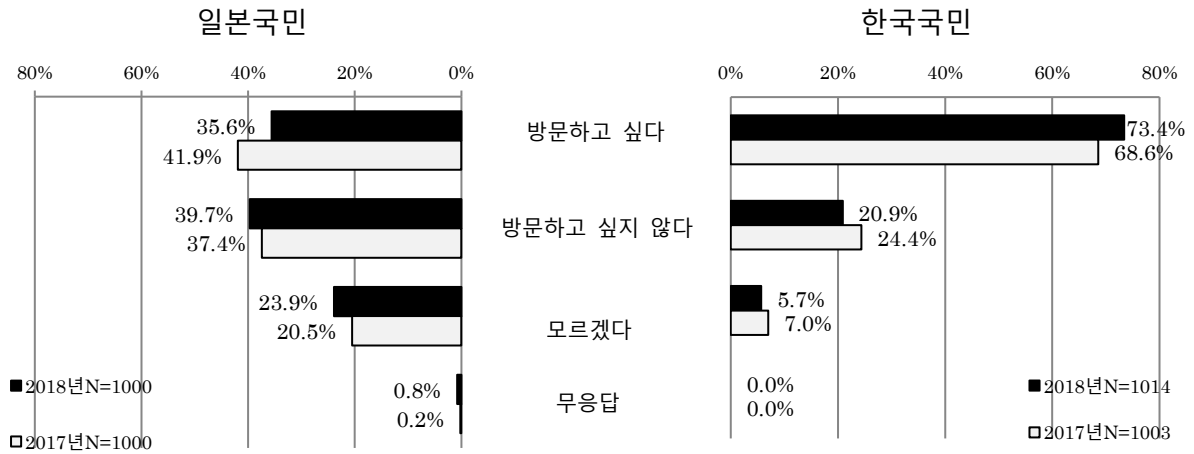


4. 민간교류

4-1.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일본인중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조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가고 싶지 않다'가 앞섰다.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이 70%를 넘어 지난 4년간 매년 증가하고있다.

【그림16. 상대국 방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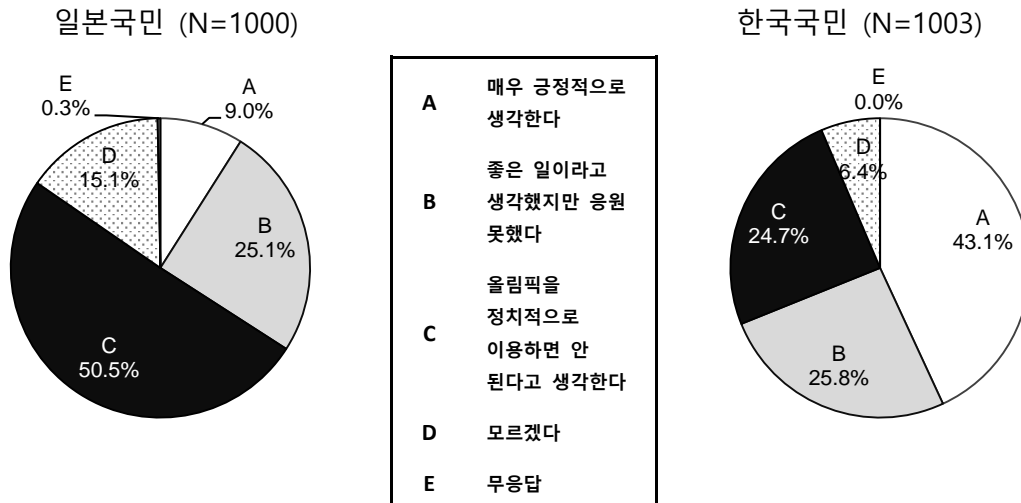


5.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평가

5-1.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평가

일본인의 절반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결성에 대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인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40%를 넘어섰지만, '솔직하게 응원 못했다'와 '과도한 정치적 이용'이라고 느끼는 사람 역시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그림17.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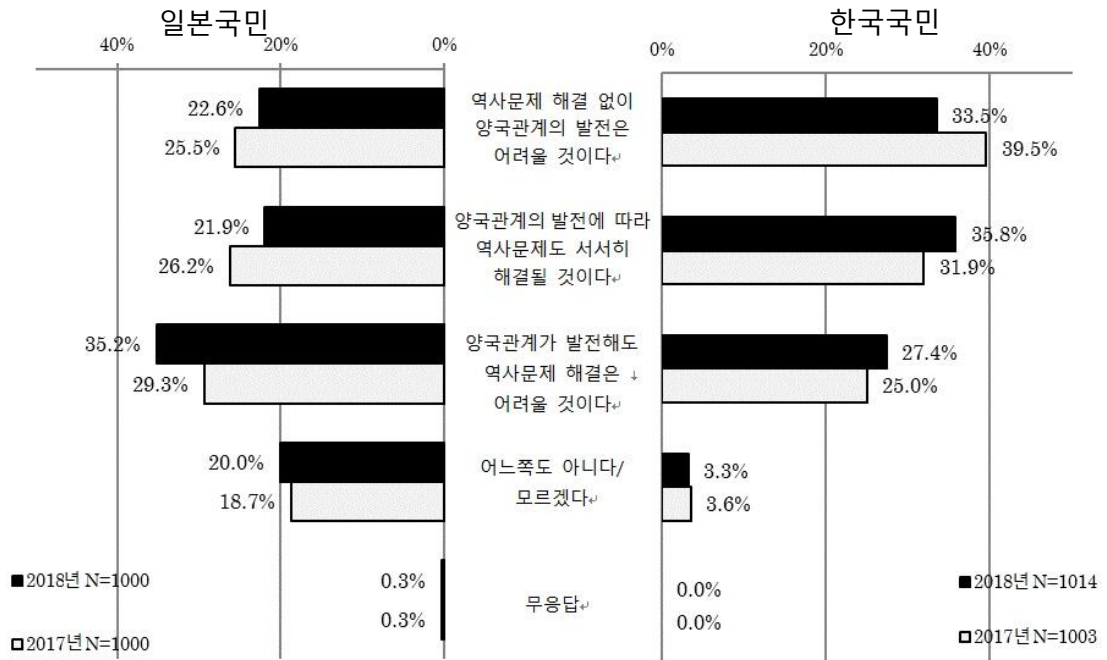
6.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

6-1.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 국민의 인식

일본인의 경우 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은 '한일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문제는 점차 해결한다'는 낙관론이 증가했으며, '역사인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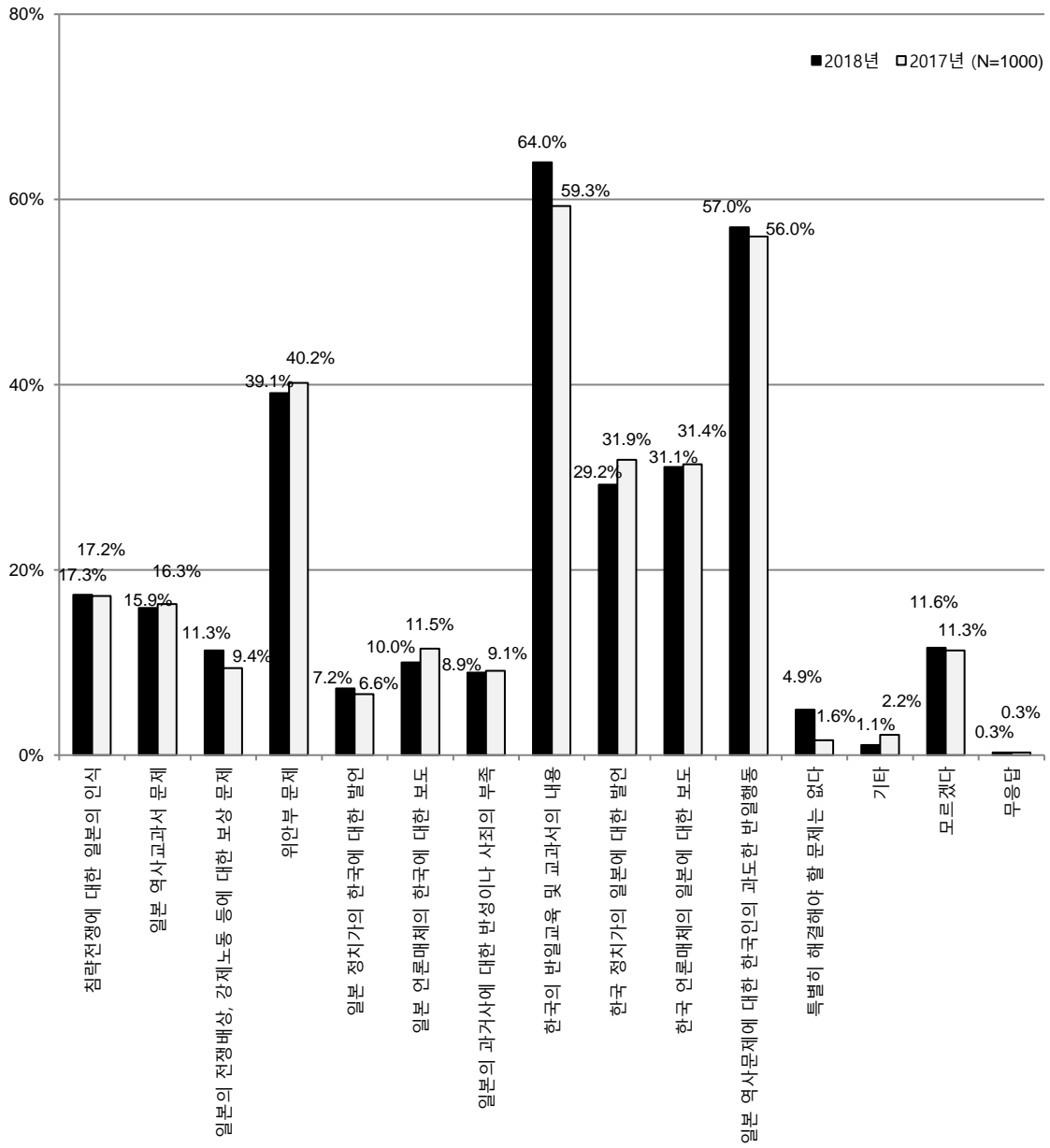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은 한국의 '반일교육'과 '반일 행동'을 한국인은 '위안부', '역사 교과서', '일본의 전쟁 인식'을 꼽는 응답이 많다.

【그림 18.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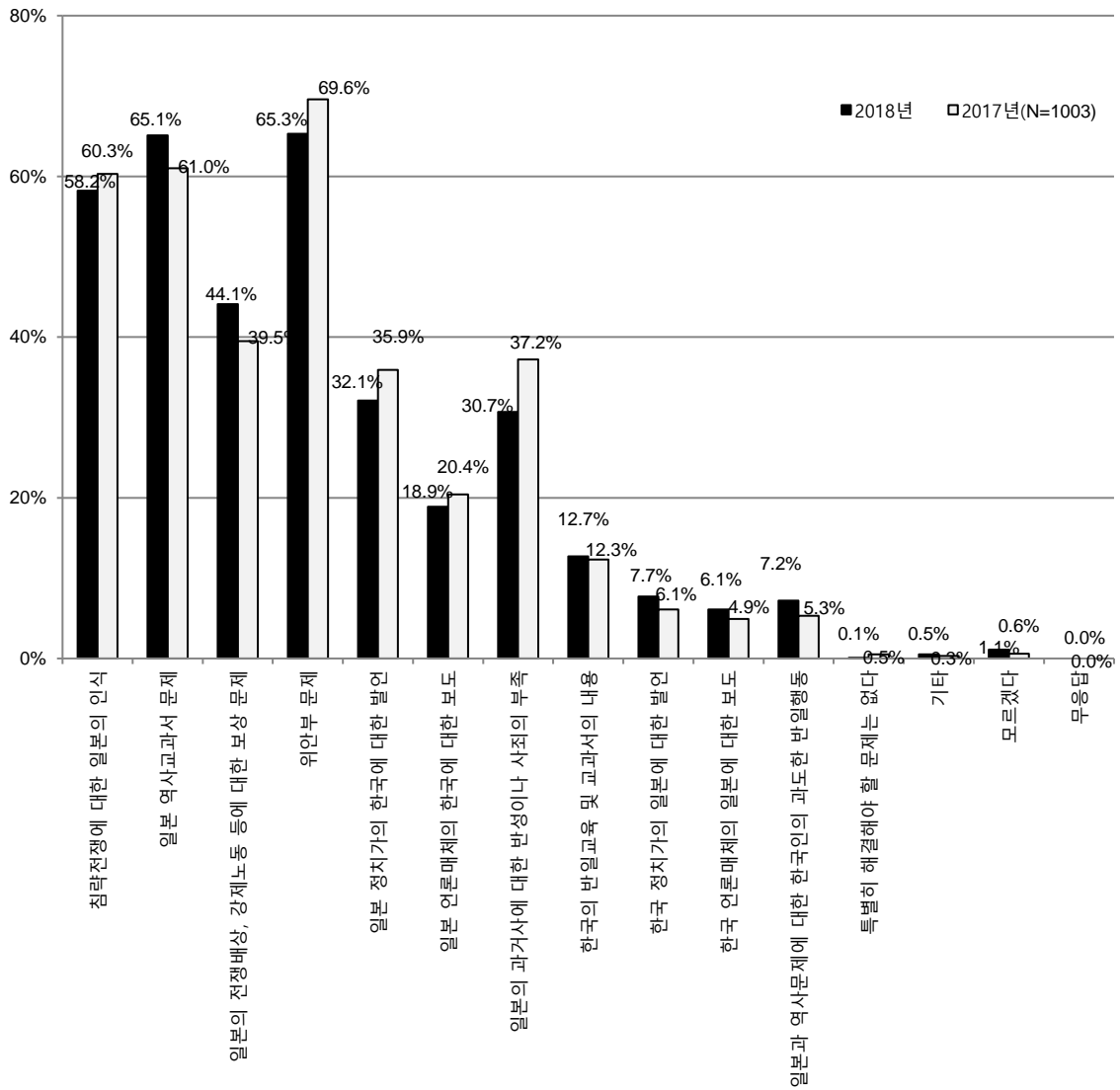


【그림19. 한일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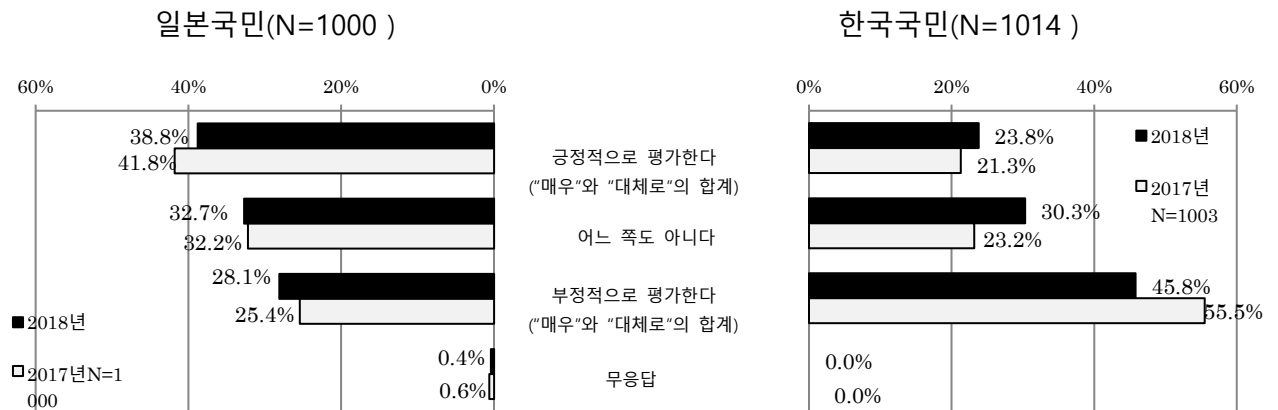
한국국민 (N=1014)



6-2.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2015년 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약 40%로 나타났지만, 이 응답률은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를 넘었지만 작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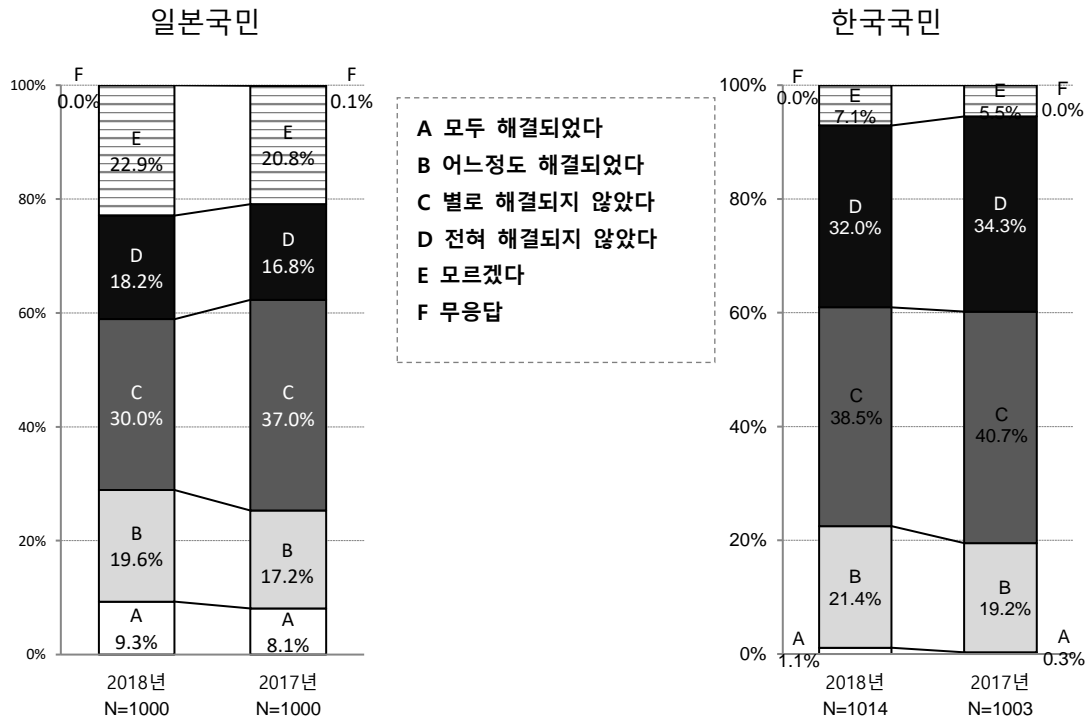
【그림20. 한일 위안부합의의 평가】



6-3.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일본인 50%, 한국인의 70%가 한일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응답률은 양국 모두 작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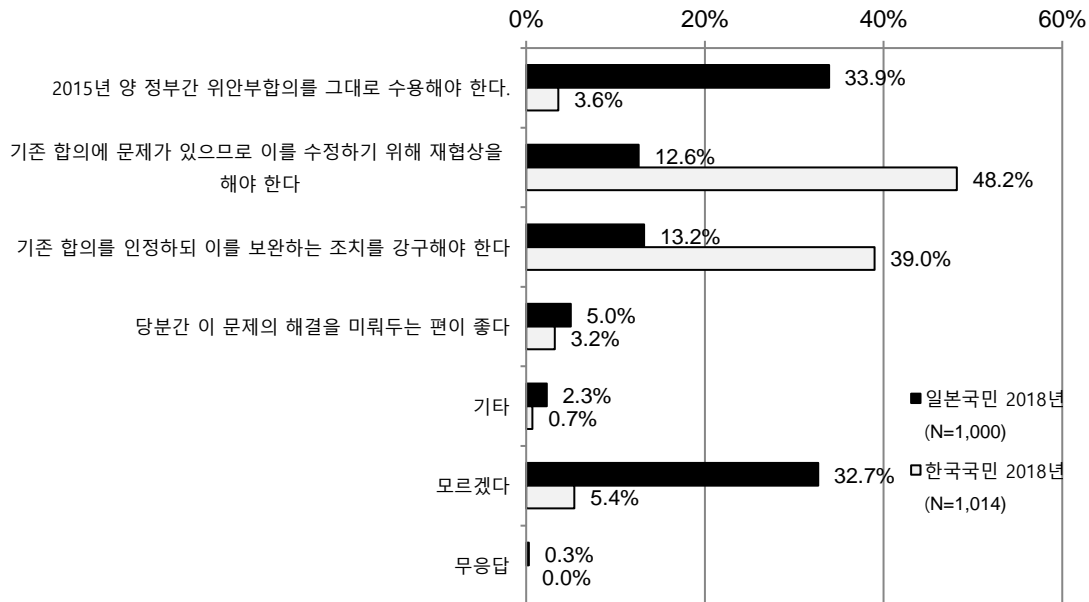
【그림21.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6-4.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법

일본인의 약 30%는 한국인 '2015년 양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정을 위한 재협상 및 보완하는 조치 강구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25.8% 있다. 한편 한국은 '합의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있으며 '합의는 인정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40% 가까이 있어 총 90%의 국민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2.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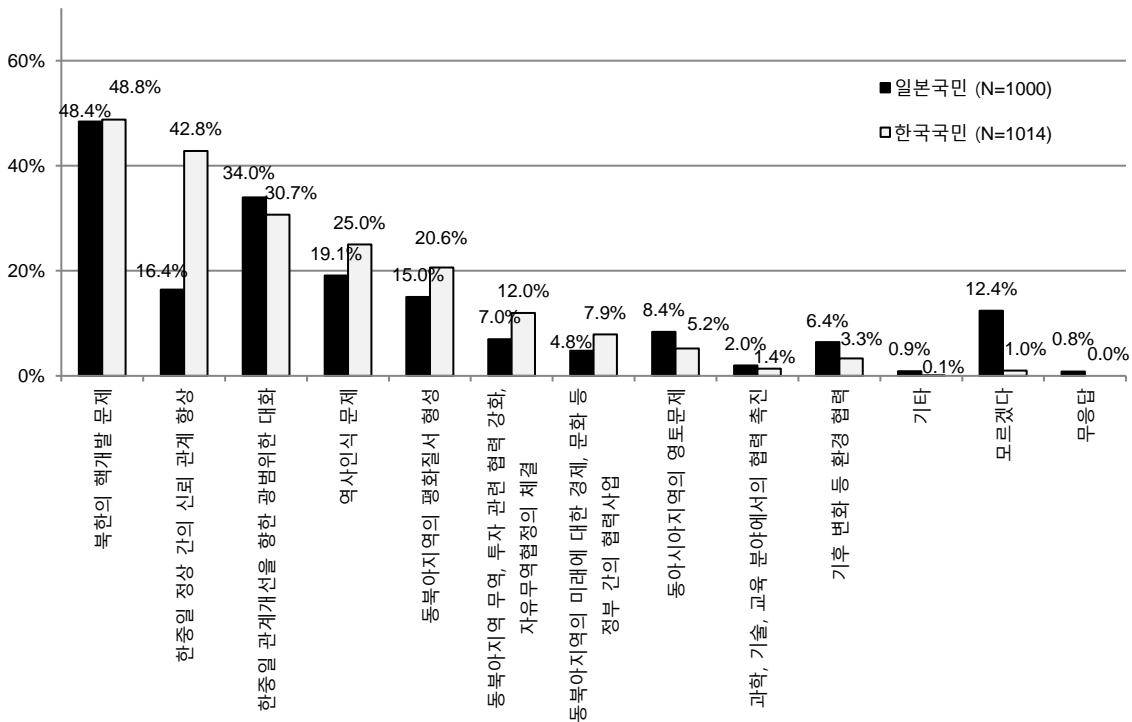


7. 정부간 외교

7-1. 한중일 정상 회담의 논의 주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8년 재개되었다. 향후 정상회담에서 거론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북핵 문제'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양국 응답률 모두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일본의 30%는 '한중일 관계개선을 향한 광범위한 대화'를 한국의 40%는 '한중일 정상 간의 신뢰관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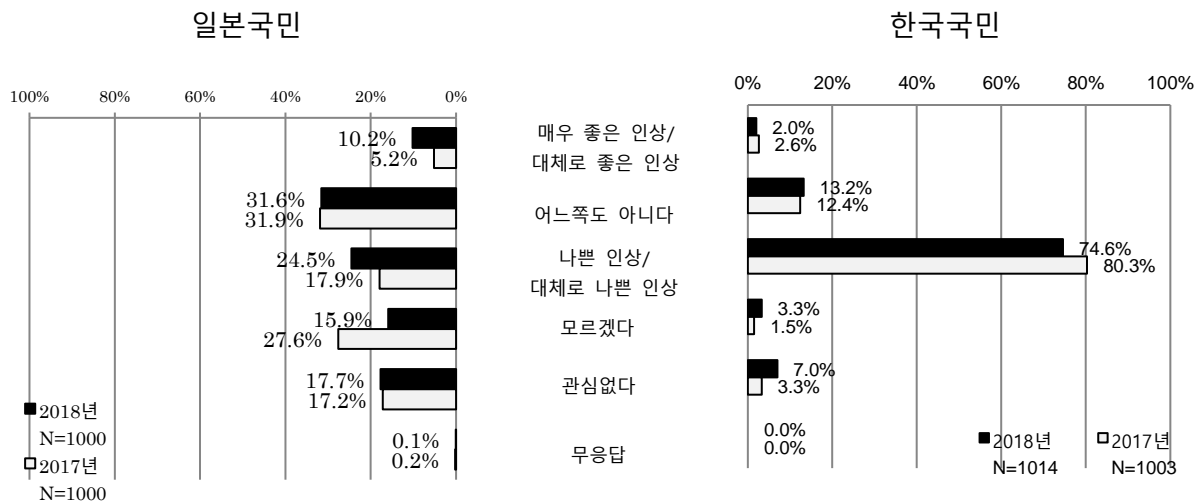
【그림23.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7-2.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일본인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어느 쪽도 아니다'가 31.6%로 가장 많았고, 이는 문대통령의 인상이 확고히 정해진 바가 없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아베 총리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70%를 넘고 있다.

【그림24.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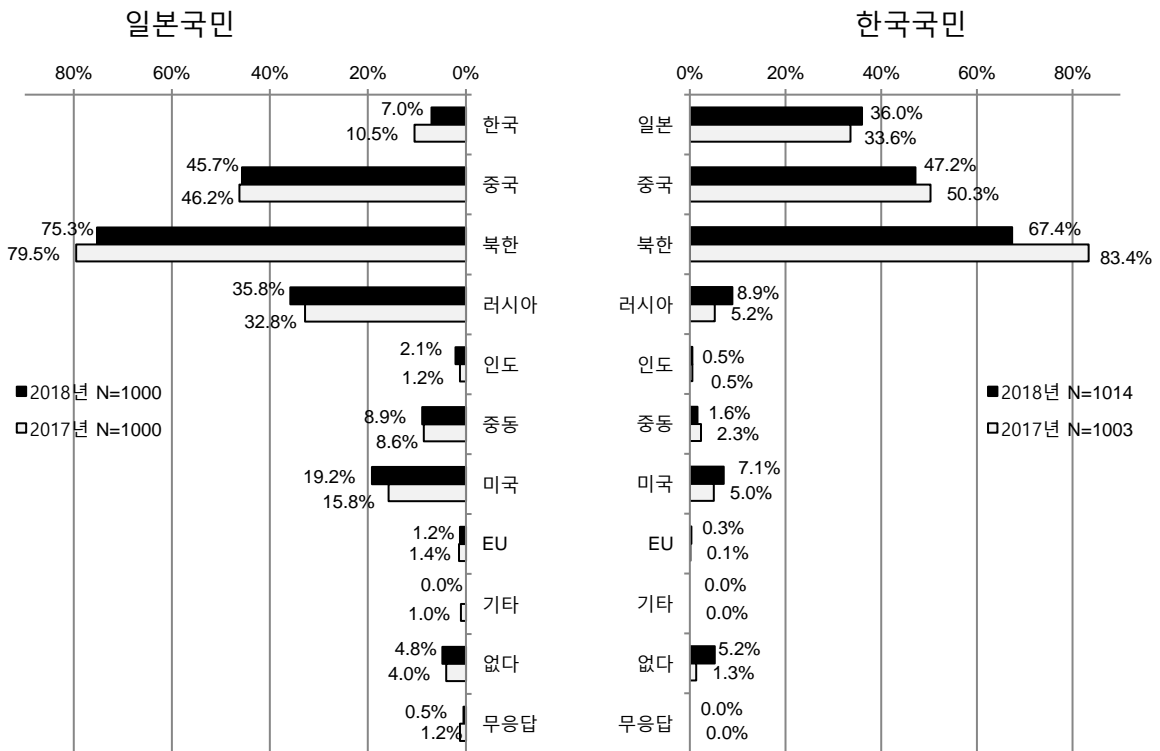
8. 동아시아의 군사 및 안보

8-1. 군사적 위협과 한일 간의 군사분쟁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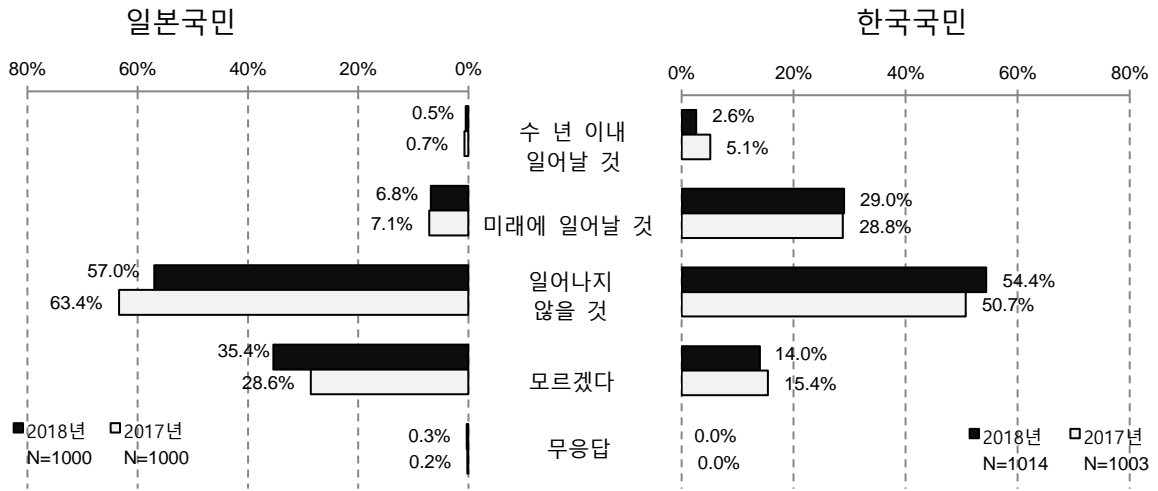
한일 양국 국민의 약 70%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핵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한국에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여전히 30% 존재하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에 관해서는, 60%에 가까운 일본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수 년 이내에 발생한다'와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합치면 여전히 약 30%가 한일 군사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5.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및 지역】



【그림26. 한일 간 군사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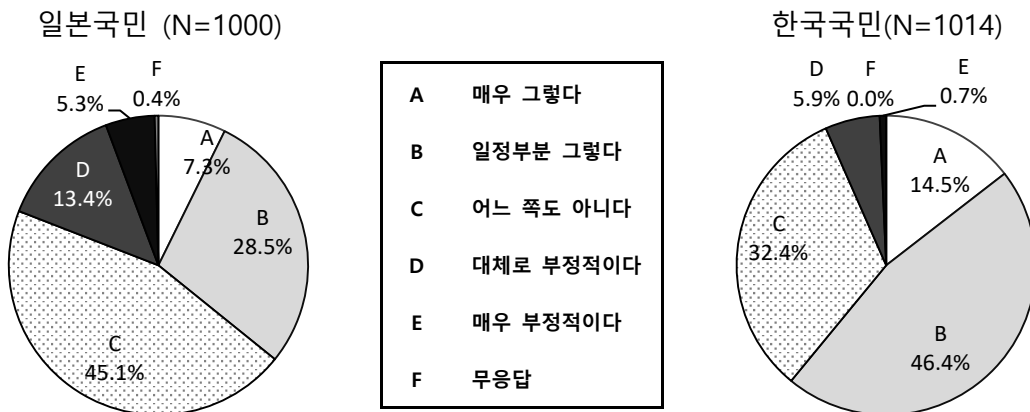
8-2.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일본인은 약 40%이지만, 40% 이상이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응답하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한국인의 60%는 찬성하고 있다.

찬성 이유로는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 일본 60%, 한국 80%로 확인했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한국과 일본에서 약 40% 정도 나타나 한반도 평화 안정의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역사 문제로 인해 서로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기 위해'가 각각 절반을 넘어섰다.

【그림27.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



9.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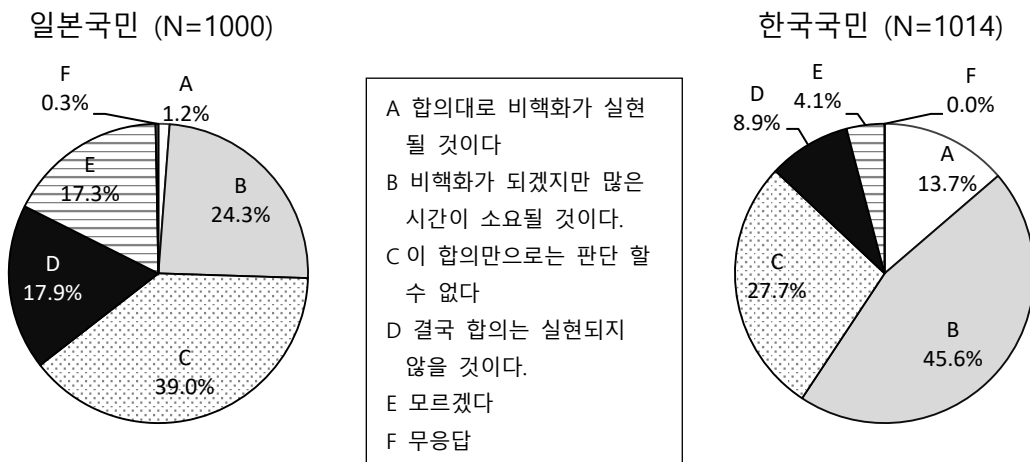
9-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의 외교 행보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했지만,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 될 것으로도 예측하는 일본인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 합의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다'와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인이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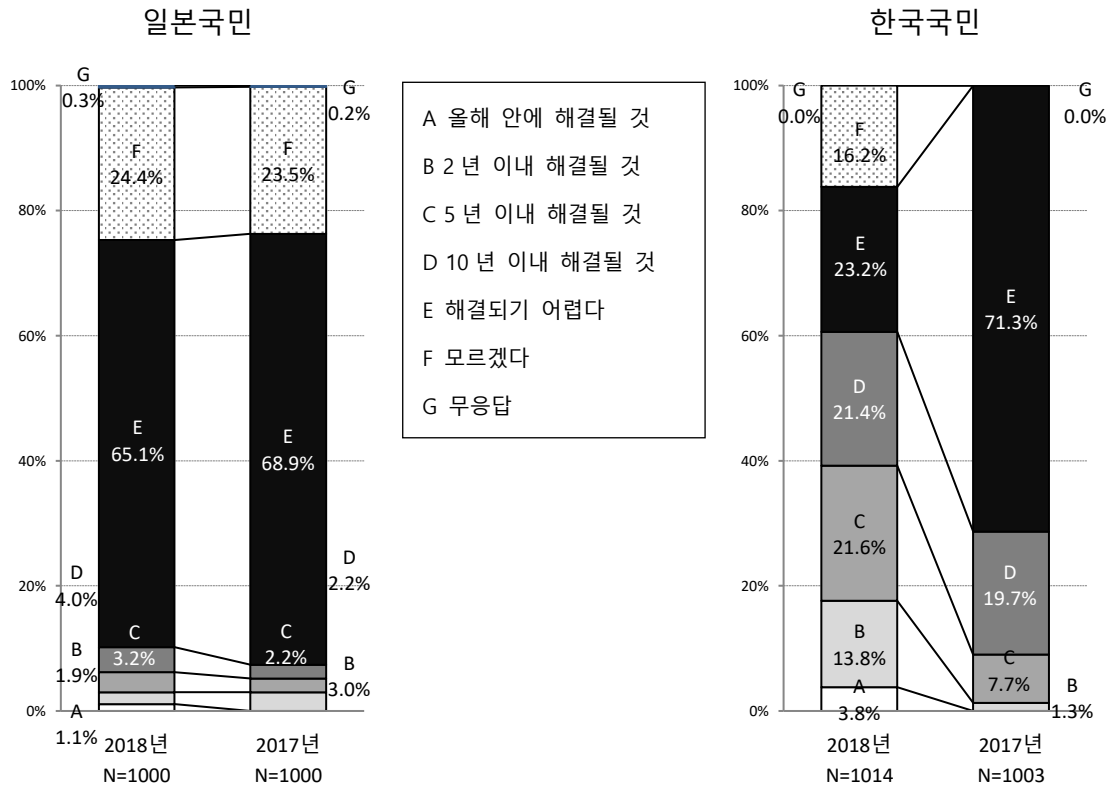
이에 비해 한국인은 '실현될 것'이라는 응답과 '비핵화 노력은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응답이 약 60%로 비핵화에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핵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났다.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0%를 초과하는 가운데, 한국인 중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의 71.3 %에서 23.2 %로 48%포인트나 감소하였으며, '올해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부터 '10년 이내 해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모두 합치면 10년 안에 "해결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60%를 넘고 있다.

【그림28.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것인가?】



【그림29. 북한 핵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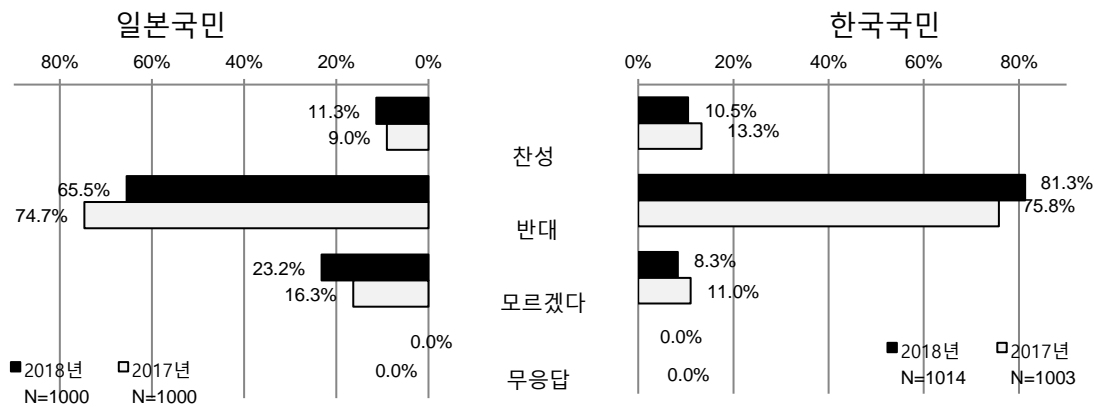
9-2. 한일 양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의 한일 양국의 핵무장 지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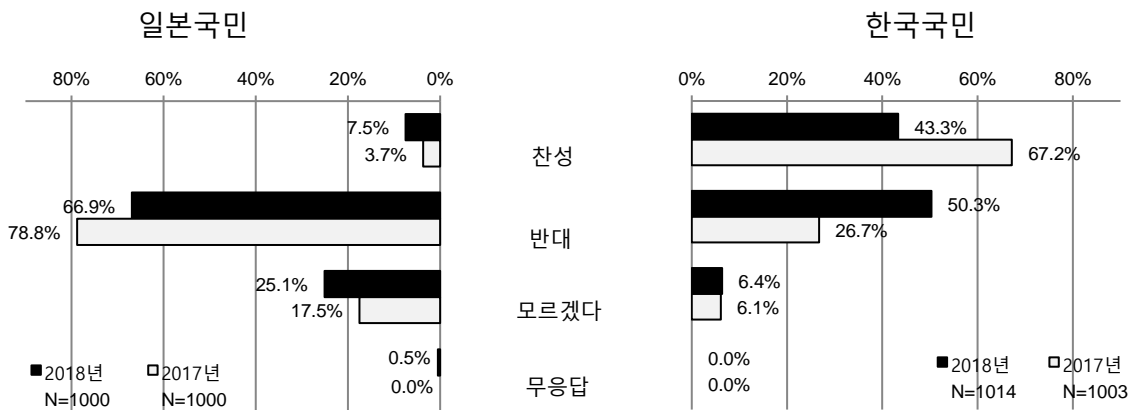
우선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에서는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9% 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인은 80%가 '반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핵무장에 대한 의식이 다소 줄어들었다. 자국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40% 이상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찬성'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2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한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의 '반대' 응답률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30.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그림31.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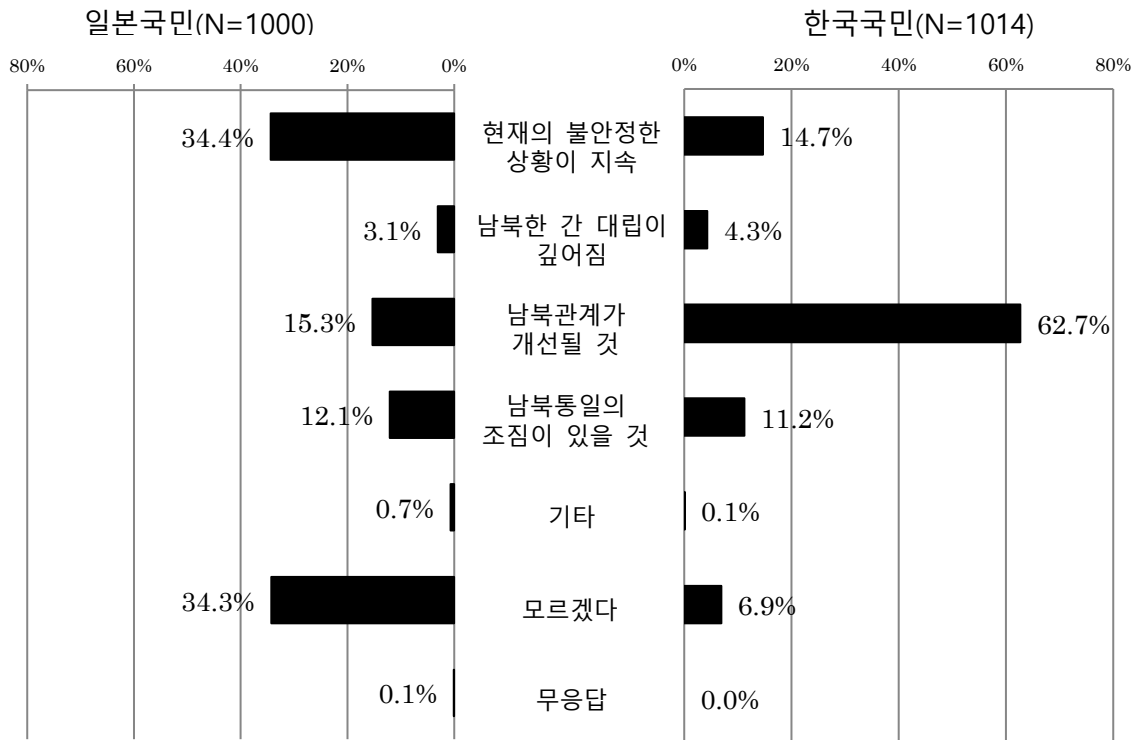
10. 한반도의 미래

10-1. 한반도 미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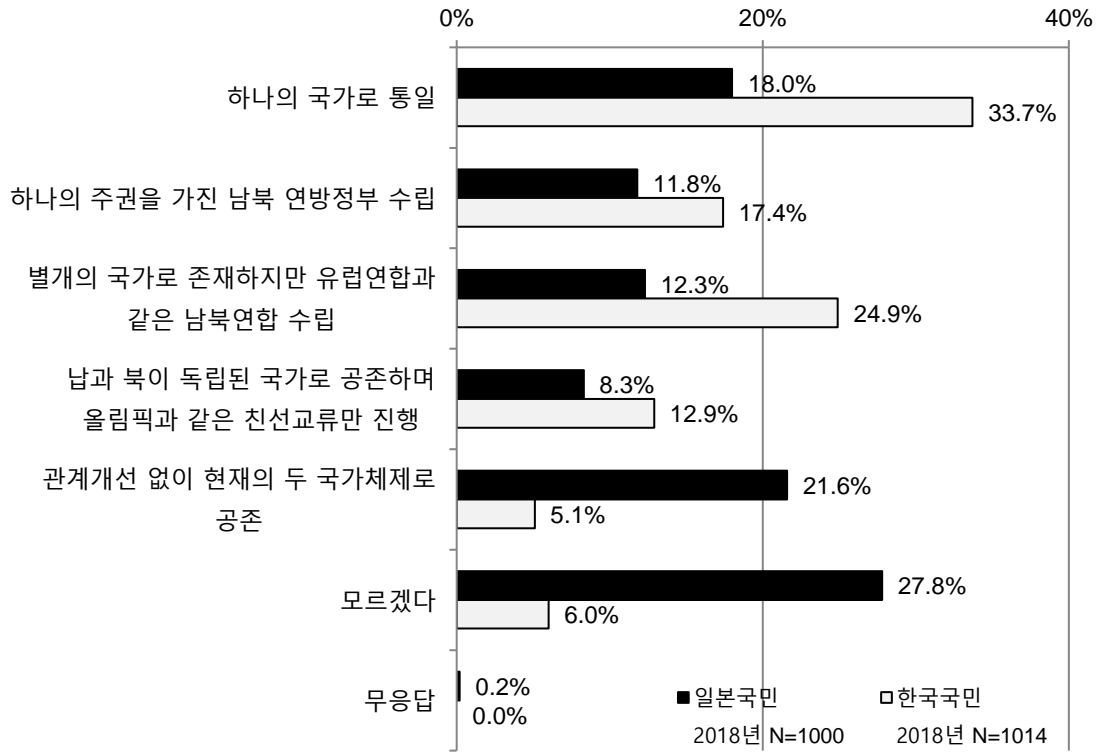
10년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본인의 40% 가까이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또는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깊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0%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한국인의 60%이상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인식하며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한국인의 약 10%가 '남북통일을 향한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에 관해서도 일본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반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대답이 많아 약 30%가 '모르겠다', 20%가 '현재 남북한의 공존'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30%를 넘고, 이에 '연방제 수립'을 더하면 국민의 절반이 통일을 향한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국가로 존재하면서 EU와 같은 연합을 수립' 또한 20% 이상이고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 이다는 불과 5.1%에 없다.

【그림32.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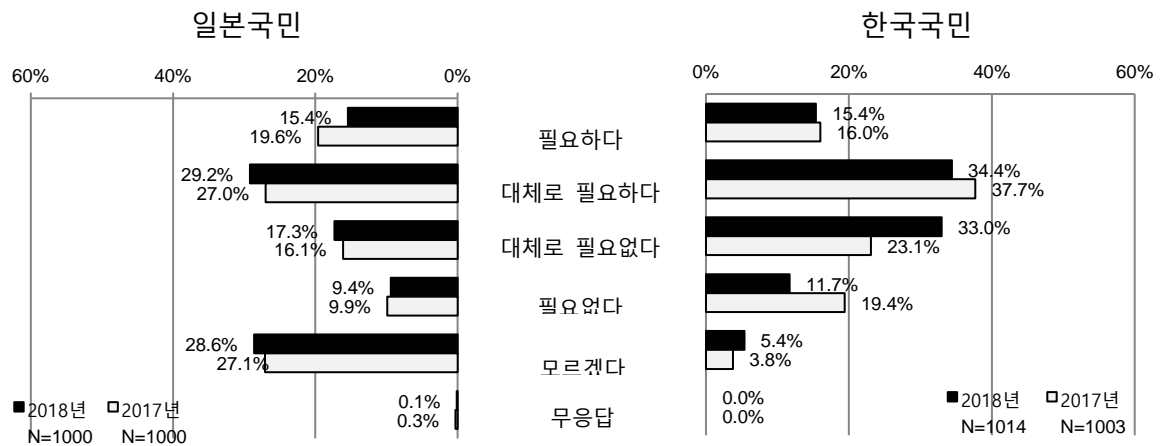
【그림33. 가장 이상적인 남북관계의 미래】



10-2. 평화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

절반 가까이 되는 한국인과 40% 이상의 일본인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었을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 중에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국민 역시 40%를 넘고 있어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34.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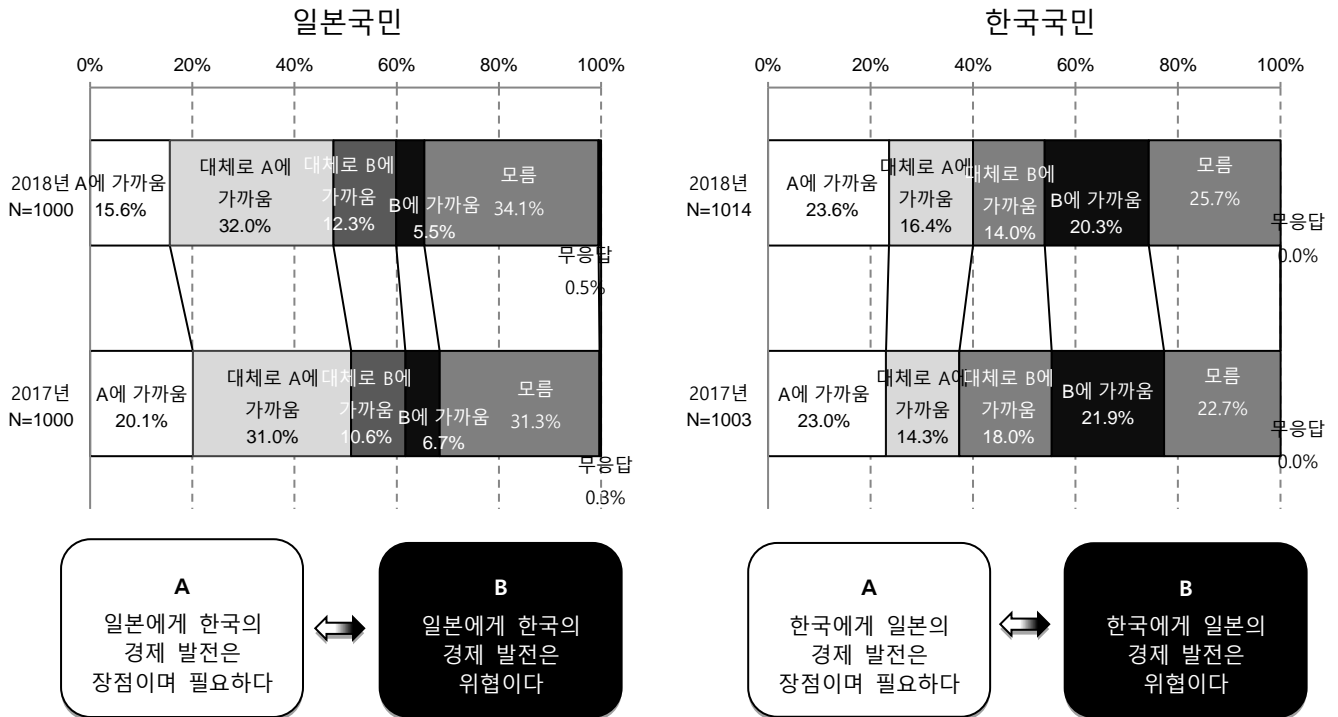


11. 한일 경제관계

11-1. 한일 경제관계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일본인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반대로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한국인의 경우 일본의 경제발전을 '좋은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여 40%를 넘어섰다.

【그림35.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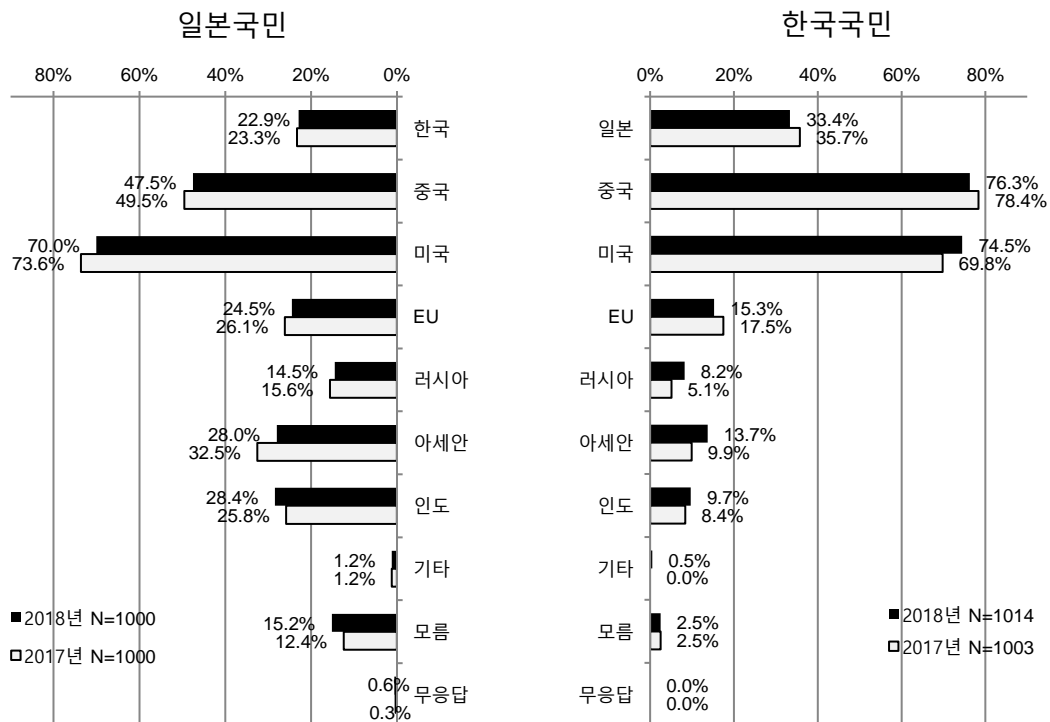


11-2.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 및 지역

자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일본인의 70%가 '미국'을 손꼽았고, '중국'이 절반 가까이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인도', '아세안', '유럽연합(EU)', '한국'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약 20%에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이는 80% 가까이 되는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미국'이 70%이상으로 중국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일본'은 30% 이상으로 미국 다음 순위를 차지 했다.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로 한국의 답변은 미국, 중국, 일본의 3개국에 집중되고 있다.

【그림36.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 및 지역】



12.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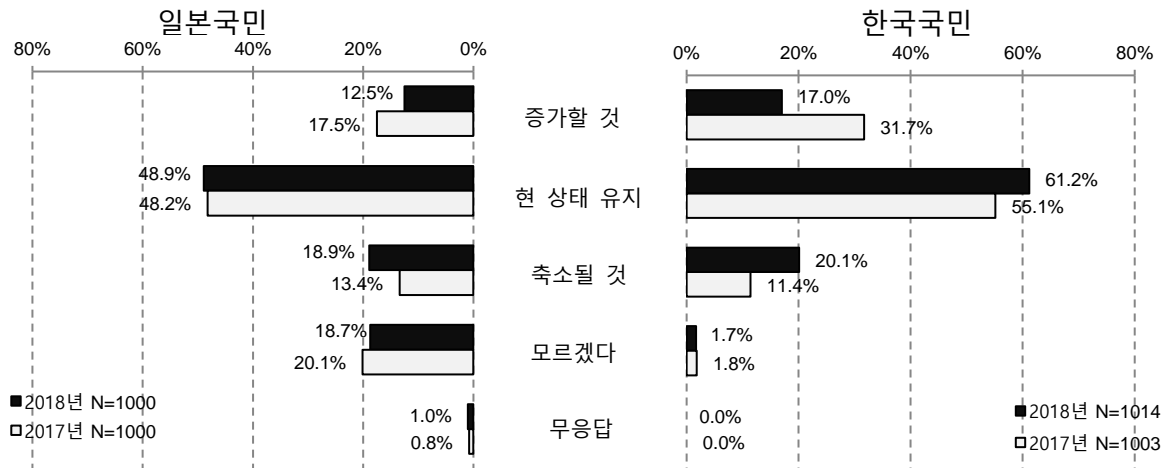
12-1.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영향력

향후 10년간의 한중일이 아시아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 모두 '변함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일본의 영향력 저하를 예상하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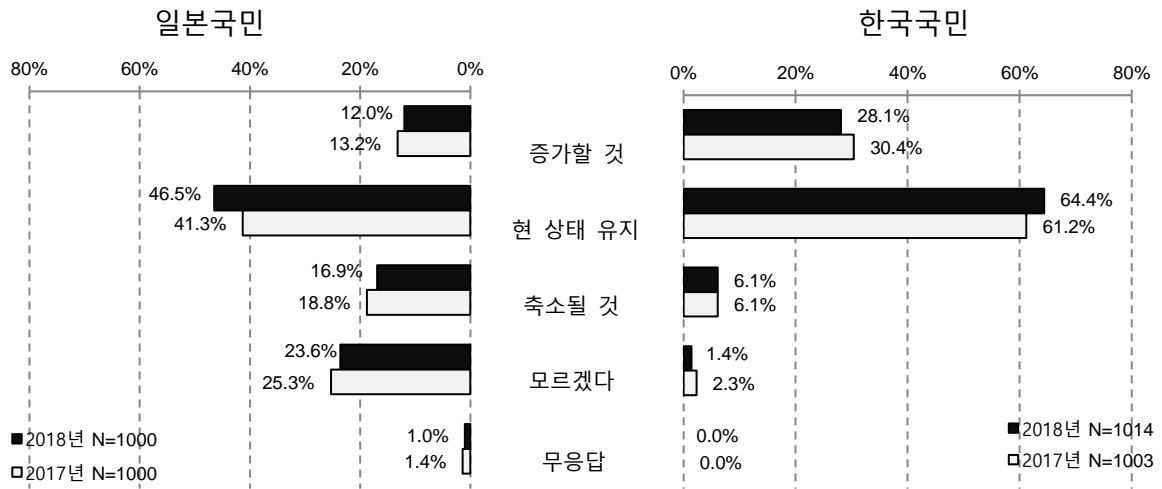
'한국'의 향후 영향력에 대해 '변함 없다'라는 견해가 일본에서 40% 이상, 한국에서는 60%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은 양국 국민 모두 '증가 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미국'의 영향력은 양국 모두 '변함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 모두 30% 가량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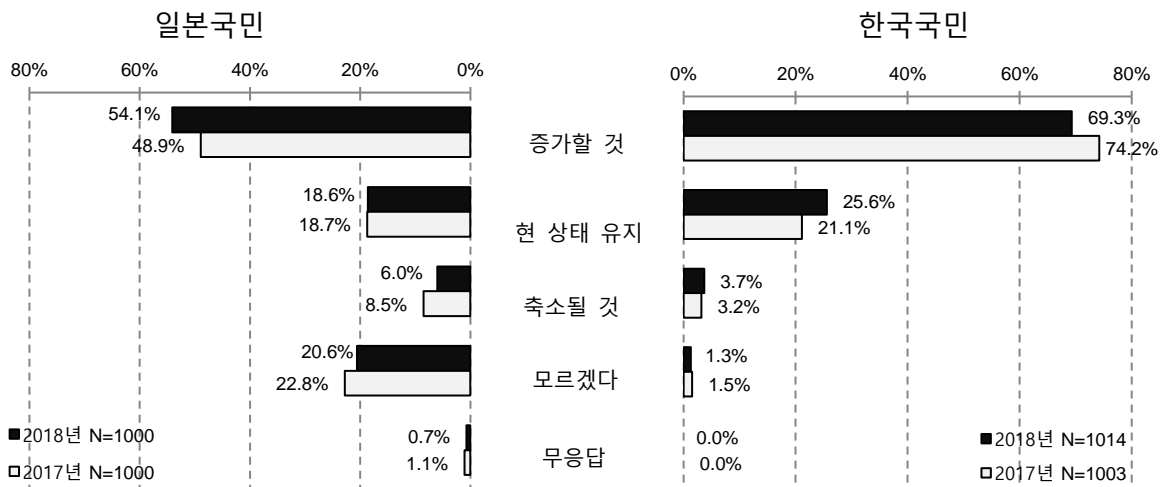
【그림37.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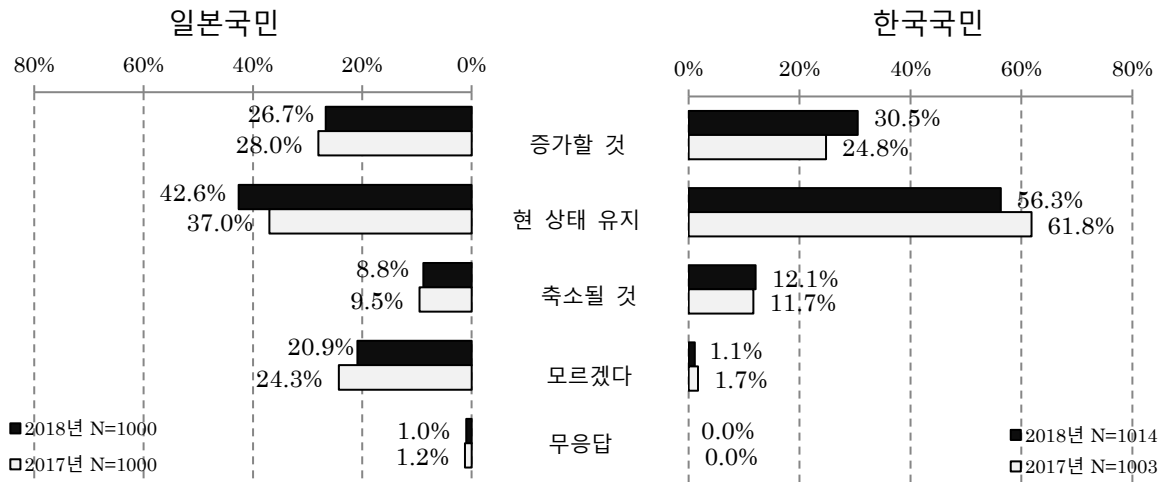
【그림38.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의 변화】



【그림39.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의 변화】



【그림40.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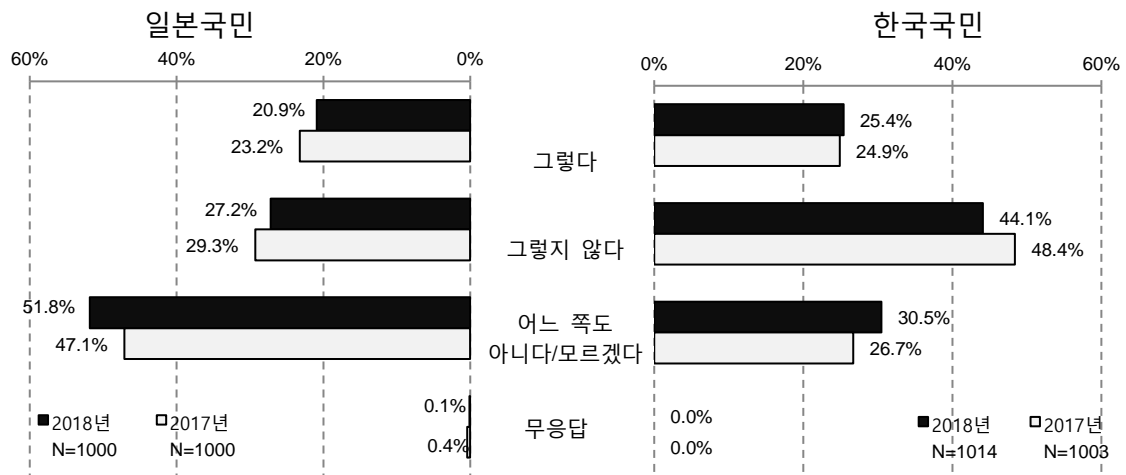


13. 양국의 보도 및 인터넷 여론의 평가

13-1. 자국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자국 언론의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일본인은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고, 40%이상 다수의 한국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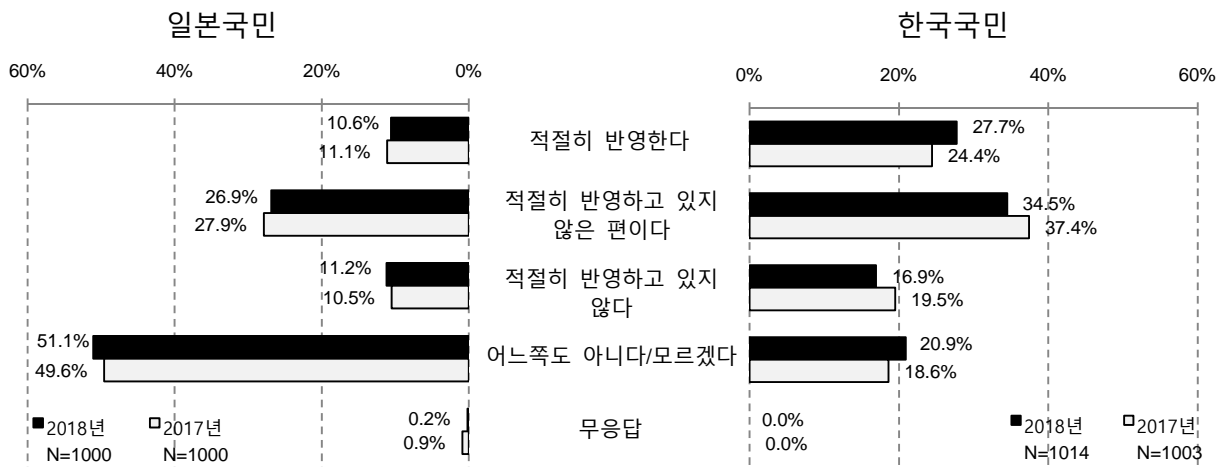
【그림41. 한일관계의 보도에 대해 자국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13-2. 인터넷상의 여론은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일본인의 약40%, 한국인의 50%가 인터넷 여론은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30% 가까이 되며, 이 응답률은 일본인의 2배 이상이다.

【그림42. 인터넷 여론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14. 양국민의 상호 이해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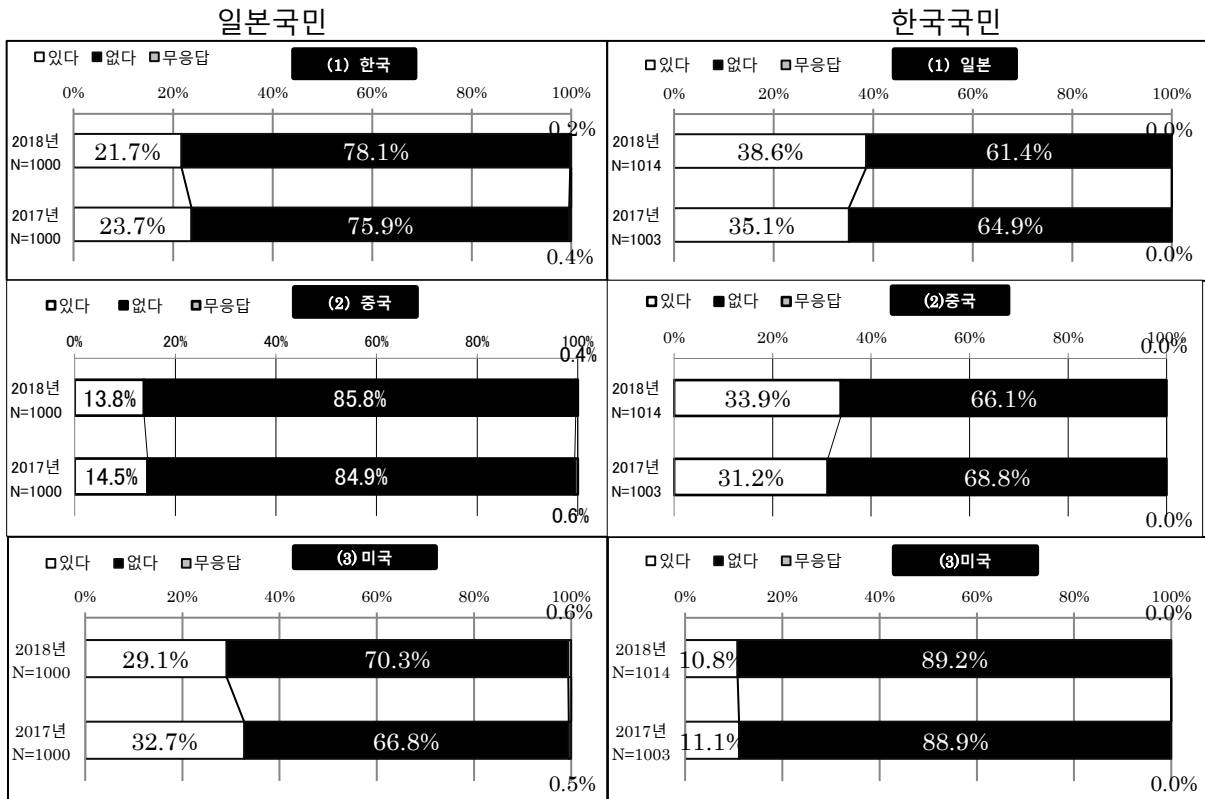
14-1. 한일 양국 국민의 직접 교류의 정도

일본인의 한국 방문 경험은 여전히 20%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일본 방문 경험은 40% 가깝다. 방문 이유로는 양국 국민 모두 '관광'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상대국 방문시기에 대해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은 '11년 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를 넘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의 경우 '최근 5년 이내'라는 응답이 70%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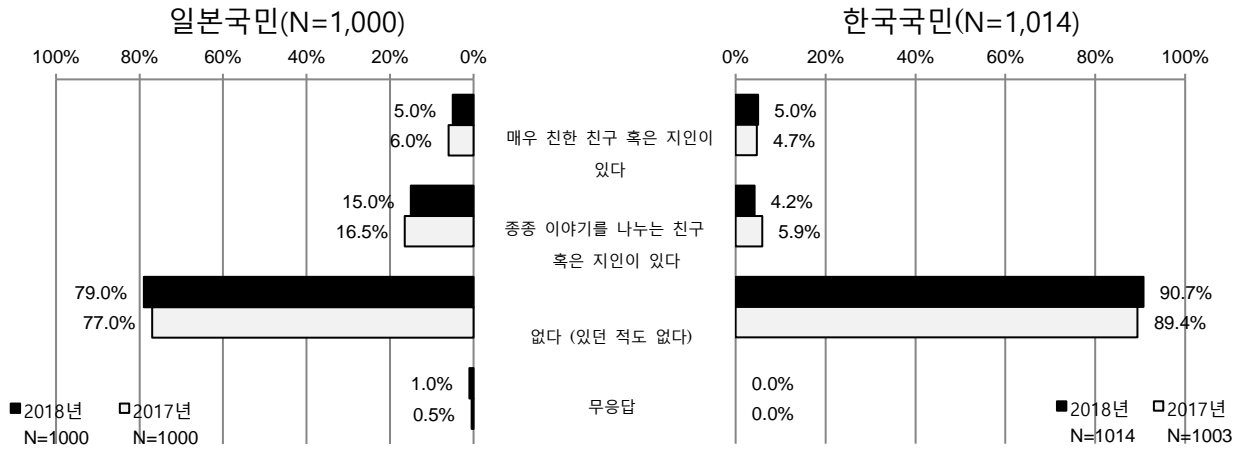
'중국' 방문 경험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지만, '미국' 방문 경험은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많다.

또한 일본인의 80% 가까이, 한국인의 90% 이상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아는 지인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43. 상대국 여행 경험의 유무】



【그림44. 상대국의 지인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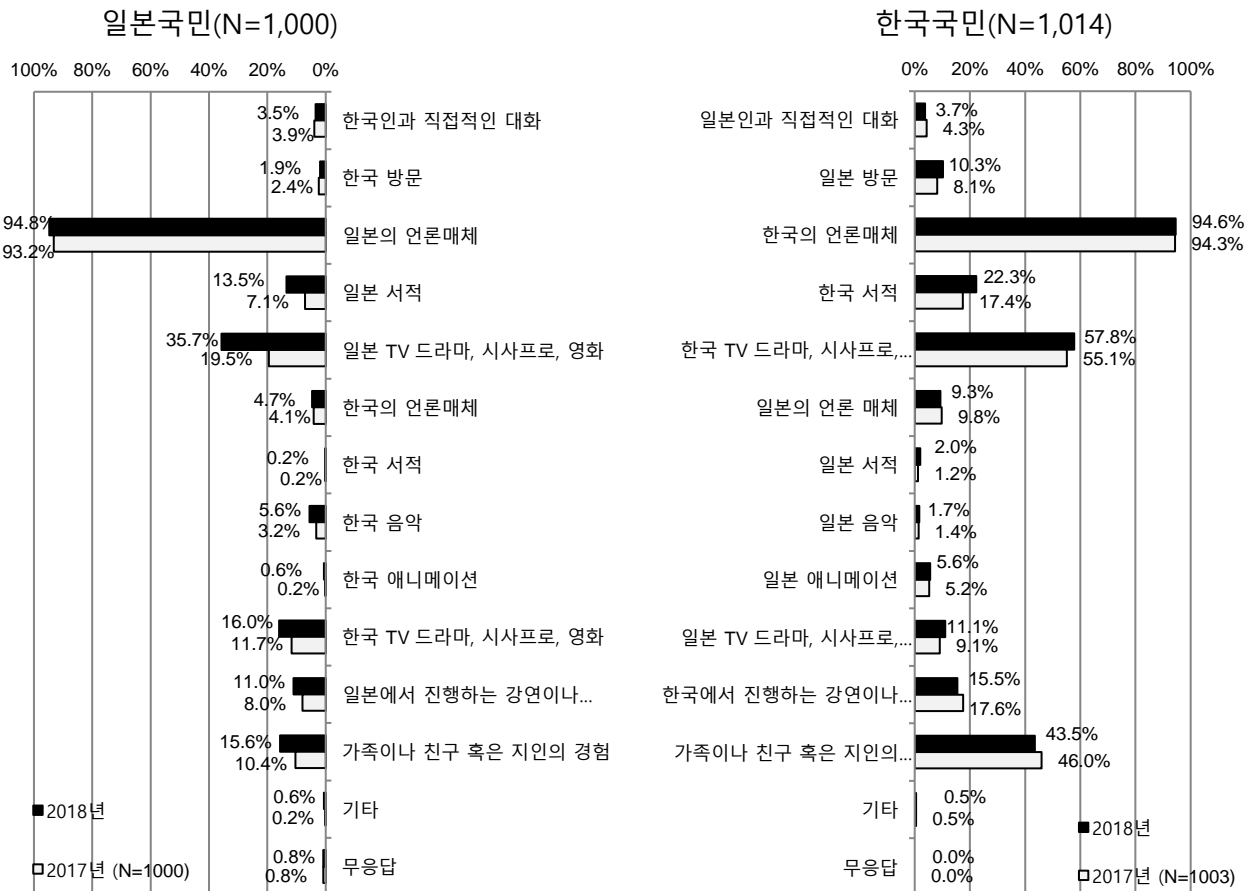


14-2. 상대국의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 출처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양국 국민 모두 90% 이상이 '자국의 뉴스 미디어'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도 사람은 한국에서는 약 60%, 일본에서는 약 40%로 나타났다. '가족, 친구 혹은 지인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의 경우 40%이상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20%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일 간의 차이가 보인다.

또한 정보 습득 시 활용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 양국 모두 'TV'가 압도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도 30%가량 있으며, 일본에서는 약 20%정도였다. 반면, 신문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은 양국 모두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5. 상대국 및 한일관계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조사개요 ■

| | 일본 여론조사 | 한국 여론조사 |
|--------|---|--|
| 조사지역 | 일본 전국 | 한국 전국 |
| 조사대상 | 18세 이상 성인 남녀 | 19세 이상 성인 남녀 |
| 표집방법 | 일본 전역 50개 지점. 한 지점당 표본 수는 20명. 전국의 성·연령구성비에 맞춰 할당 | 전국을 17개 행정구역별 광역단체 기준으로 분할.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수 결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맞추어 할당 |
| 조사방법 | 방문유치회수법 |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 |
| 조사기간 | 2018년 5월 19일 ~ 6월 3일 | 2018년 5월 21일 ~ 5월 31일 |
| 유효회수표본 | 1,000명 | 1,014명 |
| 표본오차 | --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
| 응답자 속성 | 남성 48.3%、여성 51.7% | 남성 49.7%、여성 50.3% |
| | 초·중졸 : 9.0% 고졸 : 44.2% 단기·전문대졸 : 20.3% 대졸 : 22.6% 대학원졸 : 1.5% 기타 : 1.7% 무응답 : 0.7% | 초졸 : 5.9% 중졸 : 7.5% 고졸 : 41.2% 대학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11.5% 대졸 : 31.8% 대학원 이상 : 2.1% |
| | 20세 미만 : 2.4% 20~29세 : 12.0% 30~39세 : 14.7% 40~49세 : 17.4% 50~59세 : 14.6% 60세 이상 : 38.9% | 19~29세 : 17.6% 30~39세 : 16.9% 40~49세 : 20.3% 50~59세 : 19.9% 60세 이상 : 25.3% |
| 조사기관 | 輿論科学協會 |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

◆ 본 조사에 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재)동아시아연구원

TEL : 02-2277-1683 (내선 112) FAX : 02-2277-1684

www.eai.or.kr eai@eai.or.kr